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R 8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63 1982년3월4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March 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요주의 16명」중 교포 5명

대통령 암살모의

가석방된「제롤」10대갱출신 한인회는 규탄대회 준비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의 마이클·제롤이 보석조건으로 명령받은 16명의접촉금지 인물중에는 다수의 교민이 포함되어 있다.

제롤의 변호사 알란·골드씨의 요구로 공판기록은 캐나다 내서의 공개가 금지됐으나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들의 명단이 밝혀졌다.

3일아침 합동수사반 센델리 형사는"공개가 금지된 16명의 명단이 알려져 수사에 지장이 많다" 면서 신원을 파악한 한국 기자들이 이들과 접촉을 시도, 수사반을 긴장시키고있다고 했다.

한편 한인회(20 Mobile Dr.)는 오는 6일(토)하오1시 한인회관에서 3.1절기념식을 갖고 범교민적 "전대통령 암살음모단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주말부터 한국에 각 일간지및 TV·방송 특파원들이 토론토에 몰려 사건취재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대통령 암살 음모단의 공범으로 지난1일 보석금7만5천달러를 물고 풀려나온 마이클·제롤은 토론토 시내에 한 스폰지 제조회사를 그의아버지와 함께운영하고 18세때부터 십대청소년 갱그룹에 가입했던전과자이다.

68년8월 제롤은 다른4명의 청소년과 함께 데린저권총 22구경소총등으로 무장,주유소를 터는등 35가지 범죄혐의로 온타리오주경찰(OPP)에 구속됐었다.

제롤은 돈밀지역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 주유소종업원에 총상을 입히기도했다. 그는또 68년7월에온타리오북부 무스코카 지역에서 자동차 부속상을 털다 체포된지 4일후 토론토 교외 오릴리아 경찰에의해 자동차 절도혐의로 추가입건된 화려한 범죄경력의10대 갱이었다.

문지식 사건의 열쇠?

서울에서 2개월전 반공법 위반및 밀수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교포 문지식(36)씨는 부인 유희복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었고, 그의 아버지문여산씨는 육군 예비역대령이다.

340 Dixon Rd. # 315 에 거주했었던것으로 알려진 문씨는 현재 특별수사반에 의해 토론토로 압송됐다는 설도 있고, 특별 수사요원들이 그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로 급파됐다는 설도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씨는 전직냉동기술자였고 3년전 다이아몬드 판매상도 했었으나 약1년전부터 토론토에서 자취를감추었다.

문씨는 평소부터 자기가 마피아의 일원이라고 떠들었으며, 허풍이 컸던 인물로 알려졌다.

일례로 그는 한국에 중공석탄을 팔겠다고 큰소리쳤으며, 토론토에 처자식을 두고 혼자 한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중인 공범 최중화와도 평소 친분을 갖고 있었으며 체포된 야노바등과도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야노버, 클레거맨은 전과많아 토론토 한때「부정」다이아 주무대

전대통령암살음모 사건의 주역으로 체포된 찰스·야노버는 지난 69년부터토론토조직범죄단의 일원으로 널리 알려졌다.

야노버는 24살때 이미미국에서 체포돼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인10만달러의 보석금판정을 받았었다. 유태계인 야노버는 이 재판에서 종교적 이유로 이스라엘을 가야 한다고 청원 미국을 벗어났었다.

그 이후도 계속 오토바이도둑등 범죄를 저지르던 야노버는 72년 여름에 일어났던 건설현장 연쇄폭파사건의 중요인물로 등장했었다.

72년 7월1일에 에임·래딩회사의 기관총 난사사건에 연루, 체포됐고,76년에는 이번 암살음모사건으로 수배중인 클레거맨과 160만달러어치의 다이아몬드 사천에 가담, 체포됐었다.

찰스·야노버는 공범 배리·클랏과 함께 77년4월 토론토경찰에 무기 밀매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무기는 기관총 11정,장총6정,권총 6정등이었다.

그당시 이 사건을 다룬 임시수사반은 이번 대통령암살음모사건을 수사중인 합동특별강력수사반의 모체가 됐다.

80년 10월에 끝난 이 재판에서 야노버는 유죄를시인, 그후 5년간 무기소지가 금지됐었다.

이중의 한 무기는 세계제2차대전 당시 영국정보부가 독일장성 암살용무기로 개발한 일명 웰로드(Welrod)로 알려진 MK-1 이라는 저격용총이다.

수배중인 클레거맨은 지난 63년 북미최대의 50만달러어치 다이아몬드 절도사건의 주범이었다.

당시 세계 다이아몬드밀수계는 마피아가 지배, 월간 $2백만이상 밀수다이아몬드가 거래된 것으로알려졌었다.

클레거맨이 갖고있던 다이아몬드중 하나는 싯가 2만6천달러의 팔찌로서 그리스의 선박왕 코매토로씨부인의 소유였다. 또 하나는 당시 싯가 3만5천 달러짜리 목걸이로 영국 귀족마가렛·다운 여사가 뉴욕여행중 도둑맞았던 것이다.

수사와 재판은 근5 년동안 계속됐고 이 사건으로 토론토는 다이아몬드 암시장의 주무대란 오명을 얻게됐다.

◇영국 옥서의 마가렛·다운 공작부인이 뉴욕에서 도난당했던 당시 싯가 $35,000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클레거맨의 수중에서 나왔다.

북한관리 심문 공산선전 혐의

(홍콩26일=연합)북한의문화성국장 전성환과 그밖의 3명의 북한관리가 포트·모레스비의 수도에서 공산주의 선전혐의로 파푸아·뉴기니아 정보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다.

포트·모레스비의 영자일간지「포스트쿠리어」2월24일자판에 의하면,이들 4명의 북한인들은 무역쇼에참석하기 위해 입국했다.

그러나 그들은 입국목적과는달리 북한을 찬양하는 공산주의 팜플렛과 사진을 유포하며,정치선전에 분분하였다.

911을 돌려라 소방차등 부를때

오는 22일부터 메트로·토론토 시민들은 구급차, 소방차및 경찰을 급히 부를때 전화 다이얼 911을돌리면 된다.

이 번호는 공중전화에서도 동전을 넣지 않고 부를수 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곽규석·피세영씨등 출연 가수로는 이숙·서유미양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출연진 결정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후라이보이 곽규석씨와 토론토교포 피세영씨등이 출연,진행을 맡으며 웃음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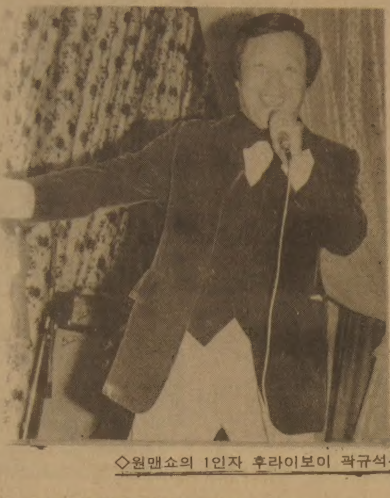
곽씨는 익살과 재치의원맨·쇼 1인자로서 이날 피세영씨와 함께 사회를 맡는다.

피씨는 모국시절 이름을 날린 연극배우,성우, 디스크·재키등 만능연예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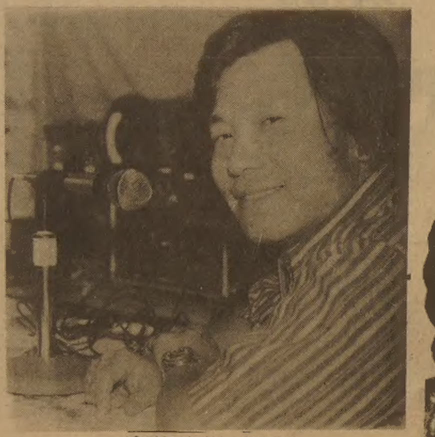
출연가수는 길옥윤이 제2의 패티·김으로 키우겠다고 발굴한 허스키 이숙양과"눈이내리네"의 힛트송을낸 육체파가수 서유미양이며,악단 코리안·키튼스가 협연한다.

코리언·키튼스의 맴버는 조상국(드럼, 섹스폰),조경희(베이스),박정자(기타),전미숙(키보드),김경분(올갠),장남홍(싱거)의 6인조이다.

출연진도 결정되고,대회준비에 만반준비를 갖추고있는 캐라반 위원회는 전국의 교포미녀 다수의 출마를 기다리고 있다. 미인대회는 4월24일(토)하오6시 토론토 다운타운 홀리데이·인에서 열린다.



◇원맨쇼의 1인자 후라이보이 곽규석씨



◇만능연예인 피세영씨

◇유영가수 이숙양

최홍희씨 관련 부인 측근 김현두씨 밝혀

최홍희씨의 측근중 한사람인 김현두씨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최씨가 관계된 것 처럼 말들 하는데 사실이 오도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토에서 천우 여행사를 경영하면서 금강산관광단등을 모집하고 월간「배달신문」의 편집자로 있는 김씨는 이날 "최씨는 아들 최중화와 불화가 잦았다. 아버지라하더라도 성년의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또 아버지의 지시를 그대로 들을 중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음모사건 보도를 보고 최씨에게 두번이나다구쳤으나 최씨는 관련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김씨는 말했다.

배달신문은 최홍희씨가 발행인, 최덕신씨가 고문이다. 김씨는 최씨가 사건발표 다음날인 25일 미국모처로 갔는데 혐의가 있었다면 수사반이 이를 제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성이나 이북을 찬양치 않는다는 김씨는 남북간 긴장완화 해소 시기에 이북 지시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유감이며 통일사업에만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이 사건은 한국 관계기관이 조작한 인상이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중화는 박정태사범이 가르치는 이북의 도장에서 박사범을 도우는 한편 그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도록 지난 12월 예정되어 간것"이라고 김씨는 말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imited
각종주식·유가증권·선물(금·은)등
투 자 상 담
361-3428 강 상 욱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뉴펫션 다량 입하!!
LONDON FOG®
springs into the 8 s with fashion.

남·잠바
Reg. $ 129.00→ Sale $ 89.00
여·잠바
Reg. $ 69.00→ Sale $ 34.00

남·녀용
Reg. $ 28.00
→Sale $ 14.00

알트·스웨드
(울쎄무·남녀용)
Reg. $ 549.00→Sale $399.00
※남자쎄무잠바 ·····Reg. $ 149.00→Sale $ 99.00

비타민·한약
WORLD of NATURE
NATURAL VITAMIN HEADQUARTERS

◎품 목
◎비타민류 : 로얄·제리, 간장보호제
종합비타민, 게브랄티
비타민E, 간 유,
무좀약, 어린이비타민등.
◎한약류 : 우황청심환, 녹 용,
십전대보탕, 웅 담(캐나다산)
정로환, 편자환, 기응환,
용각산, 신경통 특효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TORONTO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1등 성도교회·미도파
남녀배구대회, 14팀참가

27일 브랜든운동구점(대표 : 이건영) 주최 제1회 남·녀배구대회가 라이어슨 칼레지 체육관에서 벌어져 200여명 선수·관중들의 열띤 경기와 응원 가운데 성도교회가 영예의우승을 차지했다. 30세이상의 O.B.팀 시합에서는미도파팀이 우승했다.

6개의 청소년팀과 8개의 O.B.팀이 참가한 가운데 상오 8시30분 정시에시작된 배구대회는 30분간의 식순에 이어 9시부터 예선경기가 벌어졌다.

청소년부 예선전은 각팀이 2세트 리그전으로 도합 10회의 경기를 가졌으며, O.B.팀은 1세트 리그전으로 각팀이 7회의 예선경기를 가졌다.

O.B.팀의 경기는 시합자체보다도 선수들의 실수가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친선위주였으나 청소년팀들의 실력은 수준급이었다.

경기심판은 이번 배구대회를 후원한 토론토한인배구협회 회원들이 맡았으며, 온타리오배구협회 경기규칙을 적용, 볼을 발로 차거나 하면 2점을 깎는등엄격한 판정을 했다.

이날 경기는 예전과 달리 단 1건의 불상사도 없이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 교포들의 스포츠맨쉽이 많이 향상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하오 6시경 예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됐다. 본선경기는 예선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맞붙어 그 승자가 결승전에 올라갔다.

O B팀은 체력관계로 결승전만 3세트로 승부를 판가름했으나, 청소년부는준결승전부터 3세트 경기를 가졌다.

아침부터 쉬지 못하고무리한 경기일정과 너무많은 시합을 가진 탓인지 청소년부의 각팀들은 본선경기때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한인장로교회 선수 2명은 시합도중 쥐가 올라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날 모든 경기는 밤 9시경에야 끝났다.

이번 배구대회를 마련한 브랜든스포츠사의 이건영씨는 주최동기를 평소 배구를 애호하는 교포청소년들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을 애석히 여기는 것을 보고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예상외로 많은팀이 참가한데 대해 매우 기뻐하며 앞으로 교민체육증진에 적극협조를 아끼지않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최근 발족한 토론토한인배구협회 문영환 회장은 청소년 선수들의 실력이 지난 3년간 급속히향상됐다며, 교민을 대표하는 단일팀을 만들어 다른 에드니그룹 배구팀과 경기를 가질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온타리오 배구협회에 등록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나 경기가 일요일마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선수들에 지장이 있어 아직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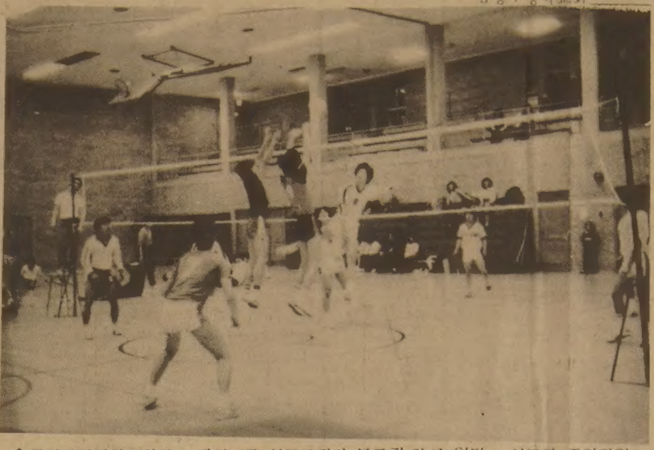
배구협회는 오는 ○월말 배구시합을 주최한다.

이날 배구시합 결과는다음과 같다.

◇O.B 팀
1등 : 미도파
2등 : 대배
3등 : 볼링협회

◇청소년부
1등 : 성도교회
2등 : 중앙한인연합교회
3등 : 영락교회

◇최우수선수상 : 석남일 (성도교회)
◇최우수공격상 : 심기호 (중앙한인연합)
◇세터상 : 악세영 (영락교회)



◇중앙한인연합교회의 스파이크를 성도교회가 블로킹 하고 있다. 성도와 중앙한인연합의 청소년부 결승전에서 성도는 세트스코어 2: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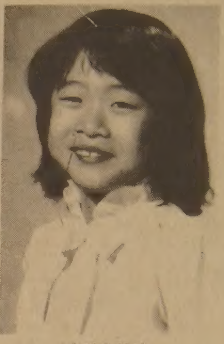
결혼축하

신랑 : 조성연군 (조기연씨 아우)
신부 : 장정복양 (김연봉여사 5녀)
때 : 3월13일(토) 정오
곳 : 한인침례교회 (블루어×오싱톤)
주례 : 홍신웅 목사
피로연 : 차이나하우스

키와니스 3등 김 수희양

김태진 실협이사장의 셋째딸 수희(수진)양(10)이 10살이하 자유곡및 지정곡 부문에서 각각3등했다.

이토비콕·페어·헤이븐·퍼블릭스쿨 5학년인 수희양 가족의 4자매는 모두음악에 재능이 뛰어나 첫째는 바이올린, 둘째는 첼로를한다.



◇김수희양

미스·틴 캐나다에 에드몬톤의 세르틱양

◇1일밤 미스·틴 캐나다로 선발된 에드몬톤 대표 에빌리·세르틱(16)양이 사회자로 부터 축하키스를 받았다.

31명의 각지 10대 미녀들가운데 미스·캐나다로 뽑힌 세르틱양은 7만여달러 상당을 부상을 받았다.

카메라 바자 성황
이론·실습 아울러

캐나다 한인 사진협회(회장 전경수)가 첫 시도한 카메라 바자및 무료크리닉은 50여 교민이참가, 2시간반 동안 카메라 지식습득및 실습도 아울러 가졌다.

지난 27일 하오2시 한인회관 강당에서 각자의 카메라를 점검했고 카메라부품에관한 의문점을 전문가에게 묻기도 했다.

이날 무료카메라 점검및 수리를 맡아준 이범항, 박일웅씨는 오랫동안「후지필름」과「코미니크」에서 일한바 있던 종사한 전문가이다. 직접 자신의 카메라및악세사리를 들고 이날 바자에 참석한 교포는 4~5명에 불과했으나, 킹스카메라(대표 김춘탁)와 패밀리포토(대표 원명희)가 카메라 및 악세사리를 가지고나와 다채로왔다.

전경수 회장의 실내촬영에대한 기본이론 설명이있은후 예정대로 80년도「토론토·선」의 최우수 선샤인걸인 샌드라 양을 모델 로한 사진촬영실습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 샤터누르는 소리로 장내는 소음과 함께 환기를 띠었다.

사진협회는 오는 3월26일 미술가 장연탁씨의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58 Wade St. (Lansdowne×Bloor)에서 실내촬영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술강의및 각자 촬영한 사진을 비교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회원들의 월례회도 아울러 갖는다.

사진협회는 매달 이같은 모임을 가지며 사진에 흥미있는 모든 교포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사진협회의 큰 행사로는 오는9월 한국일보와 공동주최하는 단무촬영 대회가 있다.

◇80년도 최우수 선사인·걸을 모델로 사진촬영에 여념이 없는 사진협회 회원과 교민들.

사상자 223명
외국선박 한인선원

(서울·　=인쉬) 대한특수항해자조합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외국선박에 고용된 한국인 선원중 해양 사고로 41명이 죽고, 182명이 중상을 입었다.

죽은 선원들중 41%는배의 안전시설 결함으로, 39%는 병으로, 10%는 배의 충돌로, 나머지 10%는 화재로 기인한 것이다.

상해를 입은 선원들의68%는 독가스의 방출로, 28%는 병으로, 나머지3%와 1%는 각각 충돌과 화재및 강도로 피해를 입었다.

작년 한해동안 외국선박을 탄 한국인 선원은 총 2만4천937명으로 38개국의 1,255척의 선박에 고용되었다.

경제공황 심각
실업률 날로 격증

설명적으로, 웬베이는 신청하는 메트로 기주 실업자들은 고용실 관리로부터 더 어정 좋석과 같이 나가서 다산 한번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아무 의미가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다"고 메트로 수석행정위이며 지역봉사위원인 존·크루지가 말한다.

지난달 한 해도 메트로 주민 1만7천명이 일자리를 잃어, 점점 악화되어 가는 캐나다 경제침체는 메트로도 예외없이 질타하고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메트로의 실업자수는 현재 10만6천여명으로, 이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부터 최저임금을 주는 직종까지의 7,970종의 직업중 한군데에 취업하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메트로가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13명중 1명꼴에 불과하다.

통계적으로 메트로의 실업률은 지난달 그전달의5.1%에서 6.1%로 상승했다. 이것은 14개월전 3.8%에서 급격히 올라간 것이다.

이 모든 일자리들이 어디로 갔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률 증가의 주요이유로 자동차와 주택산업의 불황을 든다. 그러나 그 원인은생각보다 더 광범위하다.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싸들일부터 높은 급료를 받는 베이스트릿의 금융회사나 증권회사의 중견 간부급들의 해고, 일시해고및 근무시간 단축등 이 모두 것이복합되어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보기지율로 사람들의 실수입(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일상용품이 아닌 물건은 사지 않고 있다고 한 경제 전문가는 말한다.

따라서 판매가 떨어지고 재고품이 증가하면 제조업자들은 피고용인을 일시해고시키는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동안 새로운일자리를 대량 창출했던 서비스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호텔산업과 레스토랑이 곤경을 겪고 있다. 관광객이나 각종회의 참석자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토론토 주민들도 실수입감소로 종전과 같이 외식하는 습관을 떨쳐 버렸기 때문이다.

소매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비록 대량 일시해고 같은 사례는 없었으나 수많은 파트타임 피고용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풀타임도 감원되는 현상이다. 소매업계중에서도 가정용품및 가구상점과 자동차딜러가 가장 곤경을 겪고 있으며, 파산당했거나 파산직전의 업소가 늘어 나고 있다.

상당수의 신탁회사도 재정압박을 당하고 있어, 저리대부를 하는 한편 예금 유치를 위해 예금이자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와 보기지 사업도 침체상태에 있어 지금 한창 베이 스트릿은 생산성이 없는 직원들을 해고및 일시해고시키며, 인사이동과 기구재편에 부산하다. 상당히 높은 수입을 버는 중견 경영관리인들이 가장 심한 희생을 당하고 있다.

캐나다 고용및 이민성지역경제자문위원인 경제학자 죠지·브라운은 메트로의 실업률이 아직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으며, 최고조에 이른 후 회복은 매우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것은 여름방학에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다. 올 여름에는 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이다.

브라운은 미국이 고이자율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같다며, 미국이 고이자율정책을 고수한는한 미국의 경제 영향을 받는 캐나다도 같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이것의 대가는 높은 실업률이라고 말했다.

숙정된「부패」공무원들
취업·사회활동 허용

(서울 2일=연합)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은 2일 "1년전 제5공화국이 출범하기전 숙정된 공무원들이이제는 자유로이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79년 10월26일부터 80년 3월3일사이에 부정부패했던 공무원은 관직에서 제거됐었다.

이장관은 작년 8월31일을 기해 숙정공무원의 공민권 박탈선고를 해제했음을 상기시키고 현행법은그들의 취업이나 사회활동관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와인버거 미 국방 국방 협의차 방한

근거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이 연례 한·미 안전보장회의 참석차 3월말경 방한할 것이라 한다.

소식통은 제14차 한·미 국방수뇌회담의 사전협의차 이번주 일단의 미 관리들이 서울에 올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회의의 주제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장비현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측은 미국측에 더많은 무기의 공급을 좋은 상환조건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와인버거의 방한은 한미연례공동군사훈련인「팀·스프릿 82」의 절정과 때맞춘 시기가 된다.

우편배달 개선
집집마다 직접전달

토론토 변두리 지역의우편제도가 개선되어 16,500세대가 우편물을 직접 받게됐다.

금년부터 우편요금을 76% 올린 캐나다 우편공사는전국에 걸쳐 170명의 배달원을 추가고용, 동네 우편국에가서 우편물을 찾던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덜어준다.

이 혜택을 받게되는 토론토 변두리 지역은 브라말리, 브램톤, 콩고드, 죠지타운, 마캄, 미시사가 북부, 클라슨, 스틸스뷰, 웃브릿지 등이다.

대한항공이 더욱 편리해졌읍니다

한국으로 가실때에는 뉴욕에서 매주 3회, L.A.에서 매주 10회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점보기 편을 이용 하시면 아주 편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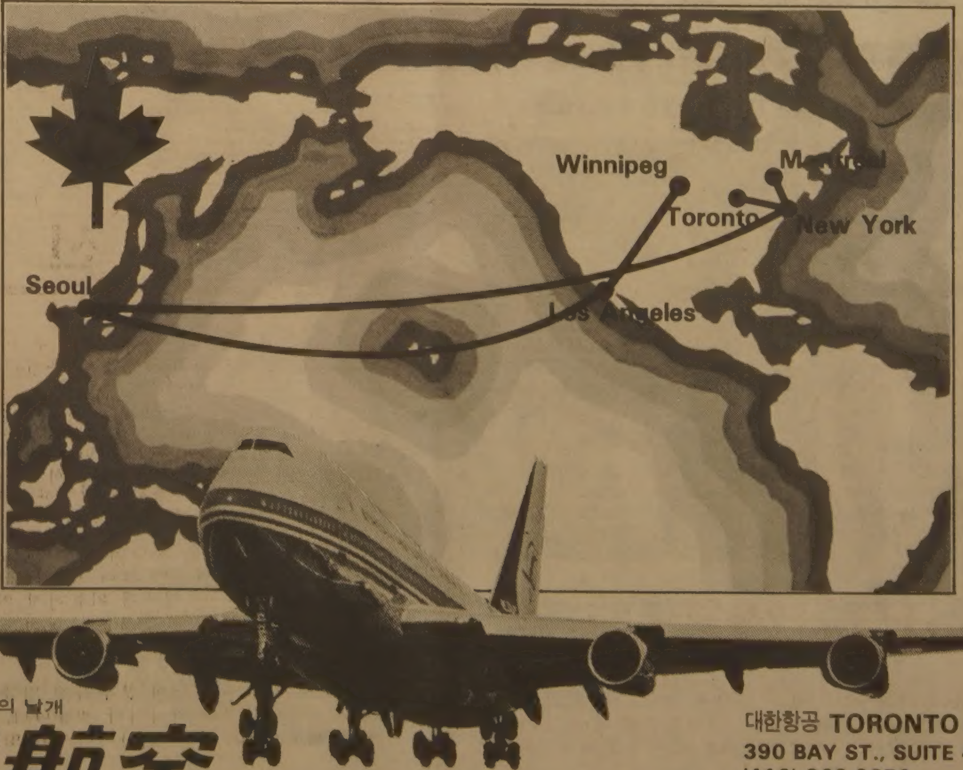
대한항공 007편은 뉴욕의 JFK 공항을 화·목·일요일 밤 11시30분에 그리고 015와 005편은 로스앤젤리스에서 매 일(월요일 제외) 밤에 한국으로 출발함으로 카나다 어느 도시에서 떠나셔도 당일로 연결됩니다.

뉴욕까지의 연결편이상 부득이 뉴욕의 LAGUARDIA 공항과 JFK 공항간을 원하시는대로 헬리콥터 편을 이용 무료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논스톱 특급편을 이용하실 수 있어 더욱 편리 합니다.

뉴욕편을 이용하실 경우엔 뉴욕에서의 호텔 1박을 무료제공, 다음날 아침 카나다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읍니다.

언어의 불편없이 정성껏 모시는 대한항공편은 오시다 뉴욕이나 L.A.의 친지를 만나 보실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카나다→뉴욕→서울		카나다→L.A.→서울		
토론토	몬트리얼	위니펙	토론토	
18:40 AC778	19:15 EA421	13:30 AC763	17:50 AC793	출발
20:00LAG	20:22LAG	17:41	19:50	도착
뉴욕		로스앤젤리스		
23:30JFK KE007 화·목·일		22:40 화수 KE015 금토	20:50 KE005 목·일	출발
07:10+2		07:20+2	07:30+2	도착
서울		서울		
19:00 KE008 화·목·일		20:40 KE012 (KE006) 매일		출발
21:10		18:55		도착
뉴 JFK 욕		로스앤젤리스		
09:10+1LAG AA263	09:55LAG AC743	07:45+1 AC764	00:32 AA196 (CHI) AA160 / 08:15 AC790	출발
10:44	11:15	15:21	09:13 / 16:40	도착
토론토	몬트리얼	위니펙	토론토	
서울→뉴욕→카나다		서울→L.A.→카나다		

KE:Korean Air Lines　AA:American Airlines　AC:Air Canada
EA : EASTERN AIRLINES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KAL 大韓航空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지정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31-4607
신 세 계 여 행 사 536-2155
서 울 여 행 사 535-6004
제 일 여 행 사 535-2377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미 연합감리교단 라그렌지의 제일교회에

50만불 상당 교회건물 기증

시카고 남부 교외 라그렌지에 있는 한인제일감리교회(장철우목사 시무)가 연합 감리교단으로부터 50만달러 상당의 교회 건물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미주 한인 교회사의 한 이정표로 남게됐다.

미주지역의 한인교회가 소속 미국교단으로 부터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한인교회에 대한 미국 교계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새로 입주할 애스버리 연합감리교회의 강단앞에 선 장철우 목사.

지난 79년 11월에 창립, 그동안 라그렌지의 미국인 교회 별관을 빌어 예배를 보아 온 제일감리교회는 창립 직후부터 교인수가 급증하여 현재는 재적교인수가 4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빌어 쓰고 있는 장소의 정원은 겨우 120명인 실정.

게다가 생활관습이 판이하게 다른 미국인 교회측과 본의아니게 사소한 일로 트러블이 일어났으나 교인들은 불편을 참고 지내왔다.

이에따라 제일감리교회는 지난 80년부터 새 교회당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헌금을 따로 적립하는 한편, 백방으로 이전할 교회 건물을 찾아 나섰다.

제일감리교회의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들은 북 일리노이 미 연합감리교단 연회의 제시드윗트 감독은 지난해 4월,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정을 확인했다.

지역 교단 감독의 방문으로 교회 이전의 희망에 부풀은 장목사와 교인들은 틈만나면 힘써 기도를 했다.

그러던 중, 빌라 팍에 위치한 한 미국인 감리교회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어 제일감리교회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게 됐다.

그러나 애스버리교회 건물을 한인 교회에 주자는 드윗트 감독의 제의는 처음부터 교단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교회 건물을 필요로 하는 교단 산하의 미국인 교회가 수두룩한데, 굳이 소수 민족계 교회에게 애스버리 교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반대였다.

한편 장목사와 평소 가까이 지내면서 제일감리교회 교인들의 돈독한 신앙심과 불편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일부 미국인 감리교회 목사들은 드윗트 감독에게 계속,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던 지난해 11월의 교단 관계자 회의에서, 장목사는 "이민생활에서 교회를 유일무이한 정신적인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는 한인 교인들에게 하루속히 「내집같은」 푸근한 느낌이 드는 예배장소를 허락해서 더욱 독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드윗트 감독은 "우리 백인교회도 100년전에는 지금의 한인 교회와 비슷한 시련을 겪었다"고 회고하면서, "하물며 백인들도 정착 과정에서 그토록 어려움이 많았는데, 소수 민족인 한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할 것이며, 이들을 위해 교단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때 모든 참석자들은 애스버리 교회 건물을 제일감리교회에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역만리에서 갖가지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소수 민족인 한인들에게 주님의 각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는 드윗트 감독의 간절한 기도에 함께 감격의 눈물을 뿌렸다.

▲ 미주한인교회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애스버리 연합감리교회 건물모습

제일감리교회가 오는 28일, 입주하게 된 빌라팍의 애스버리 교회는 파킹장까지 합쳐 총 2에이커의 넓직한 대지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예배실, 친교실, 주일학교 교실외에 목사관까지 마련되어 있는 싯가 50만달러 상당의 훌륭한 교회 건물이다.

28일 상오10시45분, 애스버리 교회측의 교인들과 합동 예배를 갖고 입주하게 된 제일감리교회는 앞으로 교회 명칭도 「애스버리 한인 연합감리교회」로 바꿀 예정—.

애스버리 교회측의 남은 미국교인 50여명은 인근의 미국 감리교회로 합류하도록 배려됐다.

제일감리교회는 이번 입주에 따라 애스버리 교회 건물의 나머지 몰게지 3만여 달러만을 앞으로 4년동안 갚으면 되는데, 애스버리 교회측이 피아노, 전자 오르겐, 의자, 강단대등 3만여 달러 상당의 교회 비품과 집기 일체를 그냥 두고 떠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무상 기증을 받게 된 것이다.

경사를 맞은 제일감리교회의 장철우 목사는,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갖고 교민사회에 사랑을 심는 교회로 성장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구현은 신앙생활의 근간"

지학순 주교,천주교회 대미사서 강론

▲ 정의를 왜곡,동조하는 행위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지학순주교

한국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주교가 집전한 특별강론및 대미사가 21일 상오 10시부터, 시내 퀸 어브 엔젤스 성당에서 거행됐다.

시카고 한인 천주교인 약 1천200여명이 참석한 동미사에서 지주교는 강론을 통해 그리스도 정신의 기본인 "사랑의 눈을 뜨고 모든 사물을 볼것이며 또한 주위에서 불의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거기에 무관심하거나 더구나 정의를 왜곡해서 동조하는 행위등,의리에 어긋나는 생활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달픈 이민생활로 정신적으로 바쁘고 어려울수록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것을 당부하면서 예를들어 서울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정신적안정을 찾지 못한 때문인지 명동 본당은 예비신자가 3000명이나 된다고 전하고 신도들에게 항상 정의롭게 살며 타인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지주교는 4년전 방문이래 두번째로 시카고를 방문했으며 예정대로 일정을 마친 후 22일 LA로향발,그곳을 경유해서,한국으로 돌아간다.

연예 短信 방송

◆지난날 다정했던때의 패티와 피터.

레건 막내딸 패티·데이비스 同居俳優 스트라우스와離別

◉…대통령의 막내딸 패티·데이비스가 작년 여름부터 동거해오던 배우 피터·스트라우스와 헤어졌다.

이들을 헤어지게 만든 원인은 스트라우스의 전 동거여인이었던 샤나·호프만.

데이비스와 스트라우스는 호프만의 위자료소송에 이견이 생겨 헤어진 것인데, 소문에 의하면 레건부부가 데이비스를 헤어지도록 충동했다고한다.

코폴라監督「원·프롬·더·하트」 파라마운트서 배급을 취소

◉…프란시스·코폴라감독의 새영화「원·프롬·더·하트」는 과연 언제, 누구에 의해서 영화관에 배급이 될것인가.

코폴라감독은 이 영화의 배급회사로 결정된 파라마운트사측에 일체의 사전통보 없이, 지난 15일에는 뉴욕 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20일에는 LA웨스트우드 빌리지디어터에서 시사회를 마련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원래 개봉일을 2월10일로 정해놓았던 파라마운트사는, 선데이뉴욕타임스지에 실린 시사회광고를 보고서야 코폴라감독의 계획을 처음 알았으며, 결국은 이 영화의 배급을 취소한 상태이다.

코폴라감독이 2천6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와 2년간의 세월을 소비하며 만든 「원·프롬·더·하트」는 올드·패숀드·로맨틱·뮤지칼 영화.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 인 사 말 씀 ◇

성령교회를 담임하면서…….

김 관 선 목사

"사자가 움킨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 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3 : 4~7)"

천구백년 어간이나 두절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맥을 포착하여 그의 원래의 형상과 체질과 생리와 기능을 회복케하고 갈망하며 방황하든 양무리를 당신의 마음을맞는 목장으로 불러모아 기름진 꼴로 양육하며 그의 안에서 지체마다 상호연락 하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초석위에 수축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함과 동시 신령한 기업의 상속을 부여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주시는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나이다.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더라…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 : 14~18)"

이 남은때에 주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우리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 그리스도의신부 교회로서 그의 형상과 영광을 세상에 반영해야 하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쇠티한 예수의 녹상에 그 영양소를 보급해야 겠읍니다. 초대 그리스도의 신부교회가 무너진 이래 그의 형상이나 회복을 본 사람이 없으되 종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찬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택해 세우신 성령교회에 이를 계시하였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따라 된것이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것도 아니요 배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 내시기를 기뻐하실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 갔느니라.(갈1 : 11~17)"

성령교회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따라 된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것도 아니요배운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성령에 참여한후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된 선배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연단과 수련의 아라비아로 갔다가 14년후에 다시 하늘의 은사를 맛본 다메섹으로 돌아왔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말고 주께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것을 기다려야 겠읍니다.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필름 안쓰는 카메라「마비카」등장으로
世界의 메이커들 超非常

日 電子메이커 소니社서개발 내년末에 市販계획
필름회사등 業界반응 심각: 새대책 모색
전자기 테이프 增産에 열올려

필름을 쓰지않는 마비카(MAGNATIC VIDEO CAMERA)라는 새로운 카메라가 일본에서 개발되어 세계의 카메라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자메이카 소니사가 완성. 지난24일 발표한 마비카는 광선을 CCD라는 특수한 반도체에 전기화해서 전자기디스크에 기록하는것. 재래의 카메라는 렌즈를 통과하는 광선을 그대로 은을 사용한 감광재 (필름)에 기록한 것이었다.

마비카의 기본시스팀은 종래의 필름대신에 소형 전자기 디스크「마비팩(폭60mm·높이54mm·두께3mm)에 영상이 기록된다.

따라서 현상이나 인화를 할 필요가 전혀없다.

특성은▲찍은 영상을 부속뷰어 (VIEWER)를 통해 바로 TV에 비쳐 볼수있다.

▲영상의 합성 (몽타지)색조 조정이 가능하다▲1초당 10장의 연속촬영이 가능하고 VTR에 연결하면 비디오카메라로 쓸수있다▲촬영중에도 팩(PACK)을 교환할수있다▲기록을 지울수 있으며 되풀이사용이 가능하다▲영상이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할수있다▲보고싶은 영상을 자유로이 선택도하고 연속적으로 볼수가 있다는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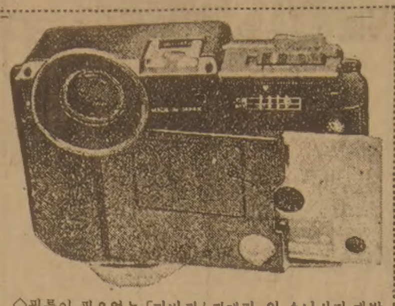
인쇄매체의 입장에서 보면 촬영한 영상을 종이 (신문지 등)에 인화했을때 선명도가 문제라는것. 전자기 디스크의 감도는 ASA200으로 야간촬영이나 고속촬영에에는 감도가 너무 낮은게 흠.

야구의 야간경기 촬영에는 ASA800이 필요하다. 또 일반 캐메라용 렌즈를 마비카에는 바꾸어 사용 할수가 없는 것도 문제로되어있다. 그러나 마비카는 암실이 필요없는데다 재래의 카메라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시판이 될 경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전망이어서 카메라업계에미칠 파문은 매우 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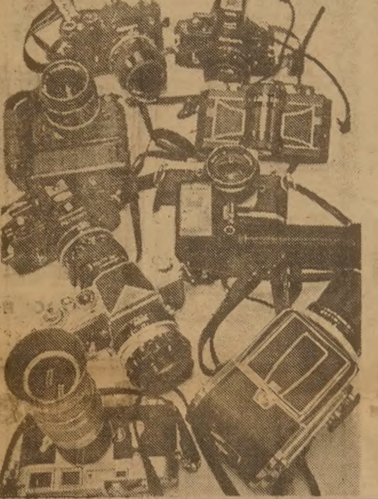
이제 시험생산에 성공,내년말께면 대량 생산될 전망이다.

가격은 본체가 15만엔, 전자기 디스크를 재생해서 TV에 영상을 비추어 보는 마비카뷰어가 5만엔정도.

마비카 시스팀은 ▲형식=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크기=본체 폭130미리미터, 높이 89미리미터, 두께 53미리미터 ▲셔터속도=60분의1초 ▲무게=본체 800그램 ▲교환렌즈=25미리미터 F2·0, 50미리미터 F1·4, 4배 줌렌즈 (16~64미리미터) F1·4 ▲전원=건전지 3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필름이 필요없는「마비카」카메라. 일 소니사가 개발, 내년말께에 시판될 예정이다.



▲필름없는 카메라「마비카」의 출현으로 종전의 각종 카메라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소니社株式, 東京서 연일 폭등勢 재래식 업체의 주식은 내리막길

혁신적인 이 마비카의 등장에 따른 일본의 카메라업계는 반응이 착잡하다. 일본의 카메라 메이커는 30여개사.

80년도의 총생산수는 1천1백98만7천대였다. 이가운데 1천1백만대는 구미로 수출됐다. 수출총가운데 일안리플렉스카메라는 약60%.

마비카가 일반 카메라와 경쟁을 벌인다면 기존업계가 살아남지 못할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반응이다.

다른회사에서 전자기 방식의 카메라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무리라는 분석이다.

63개나되는 부속품을 소니사가 특허신청 중이어서 타회사의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톱메이커인 캐논사간부는『재래식 카메라와 똑같은 인화효과를 보이려면 시간이걸릴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미놀타사는『카메라의 발전역사를봐서 필름을 쓰지않는 카메라의 등장은 있을수 있는일』이라고 애써 놀랍다는표정을 감추고있다.

하지만 필름메이커의 반응은 매우 날카롭다.

후지필름은 전자기 테이프의 증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다른 필름메이커들도 필름과 전자기 테이프 생산을 병행하는 양면작전을 펴고있다.

한편 모리따·아끼오 소니사 회장이 마비카 개발을 발표한 24일을 기점으로 소니사의 주식이 동경의 주식시장에서 연일 폭등하기 시작한 반면 후지, 캐논, 리코, 미놀타, 올림퍼스등 대다수의 재래식 카메라 제조회사들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이변도 일어나고있다.

뉴욕의 주식시장에서도 곧 주가의 변동이 있을것이라는 분석까지 있고보면 새로운 발명은 언제나 파급효과가 매우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겠다.

時間낭비 막는 秘訣은…

US뉴스&월드리포트 제임스 스테픈과의 對談

사무실에서 계속 걸려오는 전화, 서류처리, 가정에서의 자잘한 일들—좀더 생산적일수있는 시간들이 이런 여러가지 일때문에 잘라먹혀들어간다. 권위있는 전문가들은 이럴때 어떻게하면 시간을 낭비하지않고 유용히 쓸수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있다.

「뛰어난 사람들의 시간절약방법」「근본적시간편성자」등 저서를 낸 제임스·스테픈은 최근 「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의 대담을 통해 다음과같은 견해를 들려주고있다.

—전형적인 사무실근무자들이나 매니저들이 근무중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20, 30, 40%까지 더 생산적으로 능률을 올릴수있고 그러한 생산성이 그들을 더 만족시킬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보이는것은 그들이 조정할수있는일과 그렇지못한 일을 구별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거나 매순간마다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개인이 시간을 더 활용할수있는 방법은.

▲한가지 일을 할때는 다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는일을 가장중요한 일로 만들어 업무수행에서 편안한 자유를 얻으라는 것이다. 다른일은 잊어버리고 한가지 행위에 전심을 다해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있는가.

▲나는 8가지 방법이있다. 첫째 사업과 개인생활 양면에서 다같이 목표가 무엇인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목표들을 적어보면 도움이 된다.

그목표들을 알게되면 둘째로 다시 정의를 내리고 다시 쓴다.

셋째로, 그 목표들을 규칙적으로 되풀이 상기해본다. 그렇게 할때마다 순서대로 마음속에 자리잡게된다. 이제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알게 되는것이다.

다음 이목표들을 순서대로 배열한후 한번에 할수있는 양보다 더벅찬 양을 가지고있음을 알게된다.

내가 조정할수있는게 「지금 이순간」뿐인 이상 목표들을 잘라서 그중몇가지는 다음에 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네번째 원리는 간단하다.「분할과 정복」이다.

다섯째, 정복하기위해 목표를 나누었으면 우선권을 각목표에 부여한다. 우선순위대로 계획을 계속 짜나간다.

이 다섯가지방법은 무엇이 가장 지금해야할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기본원리이다.

세가지 남은 방법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들이다. 우선 해야할일들을 계속새롭게 작성해보고, 기억해야 할일 같으면 즉각 기록한다. 그러면 마지막방법이 나타난다. 모든것을 그에맞게 편리한 장소에 맞춰두면된다.

—우선적인 일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매주마다 다음주에 있을 사업과 개인생활의 우선순위를 기록해봐야 한다. 그날 일과후 하룻동안의 우선순위기록을 돌아보고 자문해본다.

『우선적인 일을 처리했는가』라고.

—장시간 전화통화하는등 독특한 유형의 시간낭비자들은 어떻게 고쳐질수 있는가.

▲오래 전화할때는 우선 자신에게『이제 정말 지금 가장중요한 일인가』고 물어봐야한다. 만일 통화대상이 단골고객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이겠지만 아니라면 전화끊는 기술을 찾아내야 한다.

한방법은 통화대상자의 생각을 요약해서 그밖의 딴 중요한 일이 있냐고 묻는것이다. 아마『아니오』라고 말할것이고 그러면 「고맙습니다」라고 한마디하고 끊으면 된다.

—동료들과의 잡담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어떠한가?

▲이것은 큰문제가 될수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즈니스에서의 실패요인을「방해」라고 생각하고있다.「방해」에는 자신에 의한 내부적방해와 외부적인 방해등 두가지로 나눌수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실패가 외부방해로 기인하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내부적방해가 외부방해보다 더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때 정신을 집중시키지않고 사람들은 물을 마시거나 타인과 잡담하거나 등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있는 것이다.

—타인에 의한 방해는어떠한가.

▲이것도 통제할수 있는것과 통제할수 없는것 두가지로 구분된다. 통제할수 있는것은 회사의 정책이나 개인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등인데 올바르고 합리적인것을 따르면된다.

또한 대화나 협상을 통해 타인과 의견충돌을 조정하고 하나의 구심점에 도달할수있고 자신이 심리적으로 타인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면된다.

—대부분 회사들이 너무 많은 모임을 갖고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회사에서 자주 모임을 갖는것은 사업실패에 있어 2차적인 문제일뿐이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같은 봉급수준의 동료들과 자주 모이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이경우 봉급인상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다.

모임이 갖는 또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으려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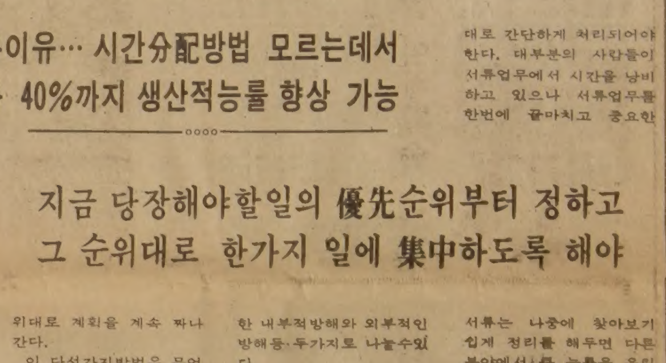
—서류업무에서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무엇이 얻어지는가.

▲서류업무는 될수있는대로 간단하게 처리되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류업무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나 서류업무를 한번에 끝마치고 중요한 서류는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두면 다른 분야에서 더 능률을 올릴수있을 것이다.

—점심을 회사내에서 할때와 바에서 할때 어느것이 능률적인가.

▲점심은 모든사람에 쉼틈을 제공하는 일종의 레저다. 따라서 대부분의 점심은 안락한 분위기에서 끝마친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게 효율적이다.

그러나 때때로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계속할때는 책상에서 샌드위치정도를 드는것이 효율적이다.



▲어떻게하면 시간을 낭비않고 최대한 활용할수있는가?「지금 이순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떠올리라고 스테펜박사는 충고하고있다.

낭비의 가장큰이유… 시간分配방법 모르는데서 사무실 근무자 40%까지 생산적능률 향상 가능

지금 당장해야할일의 優先순위부터 정하고 그 순위대로 한가지 일에 集中하도록 해야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사람에게도「귀소본능」

—英맨체스터大 동물학자 베이커교수 연구

사람도 새와 물고기, 철새들과 마찬가지로 멀고먼 거리에서도 집을 찾아 갈수 있는 귀소감각을 갖고 있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동물학자 로빈·베이커교수는 최근 사이언스·매거진(과학지) 11월호에 발표한 한보고서에서 인간도 귀소본능이 있고 다른동물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자기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베이커교수는 자기학교의 대학생들을 동원, 이들의 두눈을가린다음 버스에태워학교에서 48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꼬불꼬불 돌아서 태우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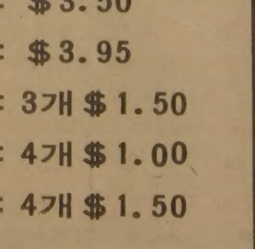
그런다음 아직 눈을 가린채로 있는 학생들에게 출발지점쪽을 가리켜 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생들에게도 10회에 걸쳐 1백6명을 버스에 태우고 다녔다.

실험결과 몇몇 학생들은 정확한 출발지점의 방향을 가리켰으며 대부분이 출발지점에서 45도이내의 각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완전하게 틀린 방향을 가리킨 사람은 몇명에 불과했다.

◆끔찍한 모녀—보험금을 타내기위해 남편을 죽이려했던 수·갈라스피여인(왼편)과 17살짜리 딸 킴이 정식기소된후 법정을 나서고있다. 이들 모녀는 청부 살인업자에게 별거중인 킴의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청부업자가 바로 변장형사여서 체포된것이다. (시카고—)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개업 특별 할인
(3월 2일 개업)
미용·화장
전문센타
이 할인권을 갖고
오시는 분에게
10% 할인합니다.
82년 5월말까지 유효.
◎ 매니-큐 화장법
◎ 얼굴 화장법
◎ 얼굴 맛사지법
◎ 피부보호 화장법
◎ HAIR-REMOVAL 보호방법
6093 Yonge St. (영×휜치)
○. Just North of Finch
○. Yonge 센타 플라자내
☎: 223-7884~5 Mrs. 리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 밥 : $2.95
생선초밥 : $4.50
오 뎅 : $3.00
오뎅백반 : $3.75
가끼우동 : $3.00
곰 탕 : $3.50
설 렁 탕 : $3.95
빈 대 떡 : 3개 $1.50
만 두 : 4개 $1.00
에 그 롤 : 4개 $1.50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대낮 銀行長室서 괴한 自爆

行長面會요구…行員도 死亡

犯人 가발쓴 20代…갱 企圖한듯

거액의 현찰을 요구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20대 청년이 한일은행본점 은행장비서실에서 사제폭발물을 터뜨려 자폭했고, 그순간 범인을 덮쳤던 은행장비서역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30대 신사로 변장한 범인은 이날 점심시간에 은행장 비서실에 접근, 『은행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수상히 여긴 비서실 직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허리춤에 차고있던 2개의 종류미상 폭발물을 터뜨린것인데 마침 은행장은 점심을 먹으러 외출중이어서 무사했고 비서역외에 안내양만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폭사한 범인이 말쑥한 차림으로 변장, 은행장실에 쉽게 접근했고 빈가방에 보자기를 갖고 있었으며 범행 하루전인 25일낮 비서실로 『조심하라, 내일 낮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건사실을 확인, 은행장에게 돈을요구하려던 것으로 보고 신원을 긴급수배하는한편 은행과의 원한관계 여부도 조사키 위해 전과자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전날"내일찾아간다 조심하라"脅迫전화

26일낮12시30분께 서울中區南大門路2街130 韓一은행본점 16층 은행장 비서실에서 임원실안내 金洙貞양(17)의 안내를 받고들어왔던 25~26세가량의 남자가 2개의 폭발물을 터뜨려 자폭했고 비서역 姜信學씨(38·서울江西區禾谷洞우신아파트20동104호)가 중상을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金양도 손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은행측에 의하면 범인은25일낮 은행장 비서실로『내일낮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걸었는데 은행측은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이날밤부터 비상경계 근무중이었다。

金양에 의하면 곤색바바리코트에 흰마스크를 착용한 범인은 왼쪽 옆구리에 주황색 가방을 낀채『회장실이 어디냐』고 말을걸었다는것。 金양이『은행에 회장은 없고 행장이 있다』고 하자『행장실이 어디냐』고 물어『식사하러 갔다』고 말하자 범인은 金양의 팔을 붙잡고 비서실로 들어갔다。

비서실에 있던 姜비서역이 소퍼에 앉아 있다가『왜그러냐』고 묻자 범인은『행장을 만나러 왔다』며 姜비서역옆 소퍼에 앉았다。

姜씨가『은행장이 식사하러 나가 안계시다』고 말하자 범인은 입고 있던 바바리코트의 단추를 풀었는데 왼허리춤에 수류탄으로 보이는 폭발물 2개가 보였다。

범인은 金양이 겁에 질려 떨고있자 姜씨와 金양을 번갈아 노려보며『얌전히 앉아있으라』고 거칠게 말했다。

이사이 직원한사람이 들어오려하자 姜씨가『들어오지말라』고 소리쳤는데 이를보고범인은 姜씨의 정강이를두번이나걷어차며『왜들어오게놔두지 그러느냐』고 화를냈다。

10여분후 鄭用盒차장이 문을열고 들어오자 姜씨는『빨리나가시오』『경비에게 연락하시오』라고말하는것과동시에 뒤에서 범인을껴안고쓰러졌다。

이때 범인은『터진다 터져』라며 姜씨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사이 鄭차장과 金양이 비서실문을 빠져나와 2~3m 걸어가는순간『꽝』하는 폭음과 함께 흰연기가 부서진문사이로 새어 나왔다는 것이다。

범인인상착의 百75㎝의 키 건장한 體格

1백75㎝가량의 키에 얼굴이 길고 건장한 체격。 공무원풍의 머리에 가발을 써 처음엔 30대중반으로 보였고 감색바바리코트와 밤색잠바 회색바지 녹색T셔츠에 흑색구두를 신고 있었다。 낮12시30분에 멈춘 브로버시계를 착용하고있었고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할만한 소지품은 없었다。

◇범인을 덮치다가 함께숨진 은행장비서역 姜信學씨。

◇자폭한 犯人

서울南大門路 韓一銀行本店

처참…산산히 부서진 爆發現場

◇범인이 터뜨린 폭발물의 위력때문에 산산이 부서진 행장비서실。 폭발현장엔 부서진 집기와 피해자들의 시신 조각이 처참하게 나뒹굴고있었다。

行長은 外出로 禍모면

5分후 도착、예정대로 株總열어

사고직후 安永模韓一은행장은『우발적인 사고로 부하를잃고 국민들을 놀라게해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安행장은『이날하오2시부터 열릴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 대비키위해 낮12시께 은행근처로 식사를나갔다가 전화연락을받고 사고5분쯤뒤에 행장실로 돌아왔다』고말하고 경찰이 사고현장접근을 막아 6층대회의실로 내려와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진행시켜 30분만에끝냈다고밝혔다。

安행장은 이날하오 2시50분께 긴급이사회를 소집, 사고대책을 협의했다。

A10機 6臺 來3일 着韓

주한美군사령부는 26일 주한미공군 증강을위해 6대의 A10기가 오는 3일 ○○기지에 도착하며 83년3월까지 24대의 A10기가 한국에 실전 배치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의하면 A10기는 오는3일 첫번째 6대의 도착에 이어 4월중에 12대、83년3월에 6대가 각각 한국에 배치될예정。

A10기(선더볼트Ⅱ)는 미공군이 자랑하는 최신예근접공중 지원기로 적기갑부대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지상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개발된 기종인데 이 A10기 배치로 주한 미군의 대전차공격능력이크게향상되게된다。 한편주한미공군은제51혼성항공단에하부대로제25전술전투중대를 편성、A10기의운영을 맡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劉總理、임시國會 國政보고

올해는 物價安定기반 구축

企業 技術개발費 稅額공제

劉彰順국무총리는26일『그동안 위축됐던 산업활동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있고 경기회복도 2·4분기 이후에는 정부의 활성화시책에힘입어 서서히 나아질것으로확신한다』고 밝히고『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 금년의 우리경제는 7%수준의 成長을 이룩하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劉총리는 이날하오 제110회 임시국회에 참석、國政보고를 통해『정부는 이미定着돼 가고 있는 安定勢를 꾸준히 지켜가면서 착실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금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를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있다』고 말하고 올해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을 ▲물가안정기반의 정착 ▲고용기회의 확대 ▲對外경쟁력의강화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제도개선의 持續的추진 ▲식량및 에너지 절약운동의 적극화등에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정부는 그동안이룩한 안정추세를 더욱 정착시켜 기필코 물가상승률이10%를 넘지않도록 통화증가율을 20~22%로 책정하고 정부財政赤字도 81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등 통화와재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할것이며 이와함께 공급능력을확대하는등 需給원활화를 기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南北韓문제에관해 劉총리는『정부는 北韓측이 언제라도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온다면 雙方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虛心坦懷하게논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이 실현될때를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각종시범사업의 실천방안등에 이르기까지 모든대비책을 마련하고있다』고 말하고『이와함께 南北韓관계의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밝혔다。

劉총리는 部門別경제시책에 관해『石油도입국을 지난해 8개국에서 11개국으로확대、원유도입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기업의 연구개발에대한 투자를 적극지원하고 기술및 인력개발비용에대한 稅額공제를 신설하며 지난해 설립한 기술개발주식회사를통한 융자를 대폭 늘려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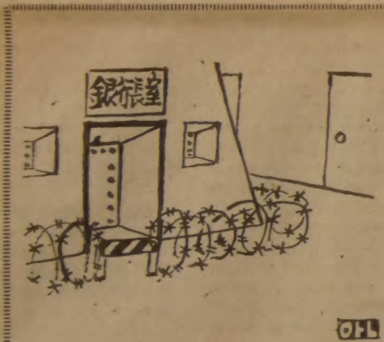
임시國會 어제開會

제110회 임시국회가 26일하오2시 汝矣島국회의사당에서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兪泰興대법원장、劉彰順국무총리등 3부요인과 주한외교사절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劉총리로부터 國政에 관한보고를 들었으며 이어 金殷夏의원해외부의장등으로부터 의원해외활동보고를 들었다。

丁來赫국회의장은 이날개회사를통해『민주주의의土着化를 위한 정치近代化는 궁극적으로 정치인 개개인의책임의식이 얼마나 투철하느냐에 따라 그成敗가 달려있다』고 강조하고『국회가 명실상부한『民意의 殿堂』이 되도록 새國會像의 수립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社會漫評



改造키로…

地平線

사람을 괴롭히는 병에도 선진국형이있고, 후진국형이 있다는게 요즈음 유행하는 말이다。 암이나 고혈압 또는 당뇨병 같은 것은 선진국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선진국병이 늘어나고 있다한다。 말하자면 돈많은 갑부가『돈때문에 죽겠다』고 엄살을 떠는것처럼 『즐거운 비명』과도같은 유행어다。 그러나 선진국병을 자랑하는 바로 그늘밑에 후진국병이 있는것을 잊어선 안된다。▼대표적인 후진국병의 하나가 폐결핵이다。 50년대와 60년대 미국유학길에 올랐던 한국인들이 호놀룰루공항에서 겪어야했던 곤욕스런 경험이 말하자면 후진국병 때문이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꼬치꼬치 따진 다음에야 한국 사람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됐던 것이다。 이제 어엿한 중진국이된 우리는 얼핏 그런 곤욕스런 대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다。▼미국에서는 최근 몇년동안 폐결핵이 급격하게 늘어나 사회문제가되고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결핵환자가 30%나 늘었다。 20년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이런 현상은 워싱턴、샌프란시스코같은 도시에서도 보고되고있다。 그원인은 후진국、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이민이 쏟아져 들어온데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결핵전문가 로런스·패러박사에 의하면 미국인구의 6%가 결핵감염자로 추산되고있다。 그러나 이들 이민은 50%가 감염됐을것이라는 통계다。 50년대이후 스트렙토마이신같은 항생제를 비롯해서 강력한 항결핵제가 나온뒤 폐결핵으로 죽는 사망률은 전세계적으로 뚝 떨어졌다。▼그러나 미국에서도 환자의 4%는 이 병때문에 목숨을 잃고있다。▼우리가 선진국병을 자랑삼아 걱정하고있는 판에도 결핵환자는 인구의 2.5%나 되고있다(80년)。 臺灣의 1.9%, 싱가포르의 0.8%에 대면 창피한 노릇이 아닐수없다。 노르웨이의 0.06%는 두말할것도 없고, 일본의 0.3%에도 댈게못되는 후진국형이다。 자랑격 걱정격 선진국병을 말하기전에 등잔밑을 살펴야 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전세계에서 해마다 결핵으로 죽는사람은 50만명이나 된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말하고있다。 이들은 대부분 치료가 늦었기때문이다。 죽기는 커녕 치료만잘하면 9개월에 완치시킬수있는 단기요법이 개발됐다고 서울대의대 연구팀은말하고있다。 서울시는 영세민을 위한 무료치료계획을 밝히고 있지만(한국일보 21일자보도)、이런 계획은 전국의 모든결핵환자를 무료치료해주는 선까지 확대하는게 바람직스럽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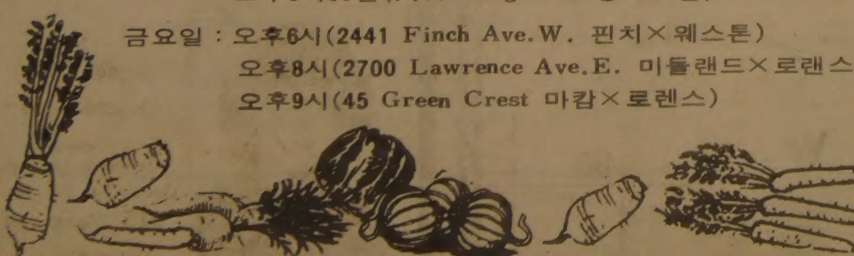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종 교 서 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봉 학 농 장
(전화 :1-775-6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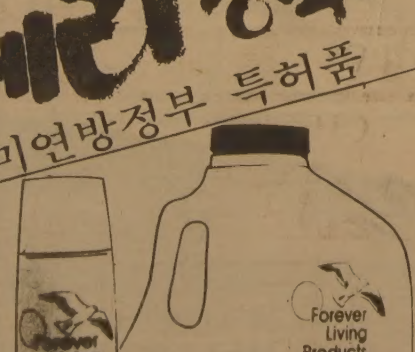
긴 겨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첫주(3월4일)부터 매주 다음장소에서 무우, 김치, 깻잎, 마늘쫑, 짠무우 판매를 실시합니다.

수요일 : 오후7시(700 Ontario St. 셔본×블루어)
오후9시(5 Capri Rd. EAST MALL)
목요일 : 오후6시(55 Emmett앞 제인×웨스톤)
오후7시30분(521 Finch Ave. W. 배터스트×핀치)
오후8시30분(7411 Yonge St. 영×스틸)
금요일 : 오후6시(2441 Finch Ave. W. 핀치×웨스톤)
오후8시(2700 Lawrence Ave. E. 미들랜드×로랜스)
오후9시(45 Green Crest 마캄×로렌스)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상륙!
미연방정부 특허품

★다른 약으로 별 효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회사 제품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쥬-스 : 위궤양·소화불량·장염·변비·당뇨병·고혈압·저혈압·풍으로 인한 신경마비·빈혈·담석증·뇨석증·관절염·신경통·월경통·천식·알레르기성체질·전신쇠약과 식욕부진, 기타 많은 좋은 효과 있음.
●젤리(가정상비약) : 화상·외상·치질·입술 부르튼데·습진·여드름·무좀·벌레 물린데·두드러기·피부암·햇볕에 탄데·정맥류·알러지·대머리·잇몸앓이·부인과질환·동상·임신으로 배가 튼곳 등외.
●힐 로숀 : 신경통·관절통·근육통·두통·타박상 반 삔데 등.
※임산부와 생리중에 있는분은 사용금지함.



* 본 알로베라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4020 DUNDAS ST. W.
TORONTO, ONT. M6S 4W6
CANADA
(416) 769-4347(B)
248-1362(H)
정 효 기(Hyo-Ki Chung)

高鮮明度 TV 첫선
美CBS·日NHK 공동
현재보다 畵面5배 깨끗

美CBS·TV와 일본 NHK·TV방송은 24일 워싱턴에서 TV산업뿐 아니라 영화에도 일대혁신을 몰고 올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高鮮明度TV(HDTV)기술을 선보였다.

CBS간부들은 현재의 TV화면보다 5배나 선명하고 훨씬 크게 보이는 이 HDTV가 흑백TV로부터 컬러TV수상기로 바뀌던만큼이나 TV산업에 대혁명을 일으키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CBS와 NHK는 이새로운 TV방영체제에 대한 정부의 승인과 새TV를위한 세계의 겸용기준을 획득할 목적으로 워싱턴을 비롯, 美전역을 돌며 새TV 기술을 전시하고있다.

다까하시·료 NHK기술국장은 일본이 새HD TV체제를 개발하는데 10여년을 소비했다고 강조하고 이 새TV체제가 곧 세계각국 시청자들에게도 선보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고선명도TV가 TV와 영화에 신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플래허티 CBS·TV 개발담당부사장은 미국의 시청자들이 오는 85년부터 HDTV로 바꾸기 시작, 흑백수상기에서 컬러수상기로 바꾸는데 걸렸던 시간과 똑같은 10여년만에 완전 HDTV로 바꾸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HDTV는 영화의 화면과 質이 비슷한 화면을 갖고있어 프랜시스·코폴라 감독과같은 저명감독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UPI】

인사이드

쓰레기서 石油 뽑아
高壓力으로 10t서 26배럴
英大學硏서 개발 생산돌입

각종 쓰레기로부터 양질의석유를 뽑아내는 새로운 처리방법이 맨치스터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돼 현재 석유가 생산되고있다.

맨치스터대학 과학기술연구소의 노엘·매코리프와 로저·벤박사팀은 플래스틱·휴지·감자껍질·정원쓰레기등 각종 폐기물을 고압력으로 처리, 석유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10t의 쓰레기에서 26배럴의 석유를 뽑아냈는데 이같은 처리방법이 상업화될 경우 1배럴의석유를 생산하는데 현재 시장원유가격의 절반수준인 약15달러의 경비가 소요될것으로 전망했다.

매코리프박사는 이들 쓰레기가 자연생성과정을 통해 석유로 전환되려면 1억5천만년이나 걸리지만 섭씨3백50도의 고압력을 사용하는 새처리방법을 적용할 경우 불과 10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처리과정으로 생산된 석유는 유황과 질소를 전혀 함유하고 있지않기때문에 공해의 우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쓰레기외에 각종 나무를 이용할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런던=路透】

美高金利에 공동대처
佛·獨頂上회담 폐막聲明
東西긴장 美蘇의 책임
EEC서 指導者역할 수행키로

【파리25日AP=聯】프랑스와 서독은 25일 고조되고있는東西긴장과 악화일로의 국제경제에 소련과 미국이 각각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은 파리에서 가진이틀간의 제39차 佛·獨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두 초강대국을 싸잡아 비난하고 유럽경제를 전례없는 침체속으로몰아넣으려하고있는 미국의 고금리정책에 대처하기위해 양국이 앞으로 수주내로 공동조처를 취할것이라고밝혔다.

이번회담에서는△미국의고금리정책△폴란드위기에 따른 동서긴장△구공시(EEC) 내 위기등 3개주요문제등이 집중논의됐는데 두지도자는 양국이 EEC의『기관차』로서 EEC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들은 국제문제에 언급,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협의를 보다 긴밀히 할필요가 있다고 강조, 미국이 통화정책을 비롯한 여러분야에서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은근히 비난했다.

미테랑·슈미트 두 정상은 이어『소련의 압력과 지원하에』행해진 폴란드계엄탄압사태가 동서관계증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소련과 폴란드의 이 같은 행동이 佛·獨양국과의 관계에 커다란 반동을 불러 일으키게될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埃·이外相 시나이半島 撤軍논의
이츠하크·샤미르 이스라엘外相과카말·하산·알리 이집트外相(左)이 시나이半島철군문제에 관한 2일간의 회담을 끝낸후 25일 합동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카이로25日電送=聯】

사우디減産해도 油價내려야
西方측現物市場값 30弗밑돌아

【런던25日外電=聯】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들의 압력에 굴복, 그들의 산유량을 감축하여 현재의 석유공급과잉현상을 완화시킨다하더라도 OPEC는 새로운 가격인하를 피할수 없을것으로 서방의 석유회사들은 생각하고있다.

석유구입회사들은 다음달 중 긴급회의를 개최하려고노력중인 OPEC가 아마도 산유량감축문제뿐아니라 후속조치로서 석유가격을 배럴당 2달러정도 인하하는문제를 조정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정부소식통들은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機構(IEA)이 수집중인 수치에 의하면 금년에도 주로 미국의 경기침체때문에 각국의 석유사용량이 더욱 감소될것으로 시사된다고 말했다.

석유업계는 OPEC의 현재 산유량이 하루 2천만배럴수준이나 금년 8월이전에는 증가할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않는다고 말했다.

市場개방 擴大요구
日、美에 크게反撥

【東京25日=聯】일본정부는 25일 외국상품에대한 일본시장 개방조치를 더욱 확대해달라는 미국측 요구에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발을 보이면서『미국은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규정도 모르는것같다』고비난했다.

스즈끼·젠꼬(鈴木善幸)수상은 맬컴·볼드리지 美상무장관이 24일 방미중인 에사끼·마스미(江崎眞澄)자민당 국제경제대책 특별조사회장 일행에게 일본의「국제인」시장개방정책을 촉구한 사실과 관련,『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수 없다』면서『미국이 특별히 원하는 조치들을 말해오기 전에는 적절한 대응책을 취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대변인인 미야자와·기이찌(宮澤喜一)관방장관도『미국은 자유세계의 무역을 관장하는 GATT의 규정을 잘 모르는것같다』고 비난하면서 그 어느나라도 일본처럼 관세를 8.8%에서 6·7.5%로 내리는등의 시장개방조치를 취할수는 없을것이며 GATT의 규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日本의 이같은 시장개방노력을 높이 평가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體育部 20일께 發足
政務長官은 2人 이내로

정부는 體育部를 신설하고 현재 3인이내로두게돼 있는 政務長官數를 2인이내로 조정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체육부의 순서를 문교부다음에 두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개정안이 이번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체육부직제령을 마련, 오는 3월20일께 체육부를 발족시킬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체육부는 기획관리실과 올림픽업무를 전담할국과 체육의 진흥업무를 맡을局, 체육과학화를위한 局등 3개국으로 조직될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당、週5日授業案등처리

국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110회 임시국회에서 국민당이 제안한 지방자치제早期실시법안、양곡관리법개정안、週5일제수업건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당은 또 尹錫民부총재의 대표질문을 통해 국회법개정을 강력히 추구하는한편 常任委예산심의권부활、상오開議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民韓黨 財政委 委員20명구성

民韓黨은 26일 申宰休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재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재정위원 2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申宰休(위원장)、梁在湙、金崔雲芝、孫泰坤、朴炳一、池進基、李重熙、延濟源、池槇道、李敏根、李英駿、金泰洙、徐鍾烈、崔相守、安健一、申鎭洙、李廷彬、尹起大、康源采、沈憲燮

兵務廳長 千珠元씨

정부는 26일 제4대 병무청장에 千珠元씨(예비역 육군중장·사진)를 임명 발령했다.

房景源청장은 이날자로 의원해임됐다.

◇千청장약력 ▲충북忠州출신·54세▲육사9기▲서울大행정대학원수료▲주월맹호사단참모부장▲육본인사참모부장▲국방대학원장

한국職業訓練公團 이사장 李應善씨를 任命

정부는 26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사장에 李應善前과학기술처차관을 임명, 발령했다.

◇李이사장略歷 ▲江原洪川출신·48세 ▲서울大卒 ▲경제기획원기술조사과장 ▲과학기술처국제협력국장·진흥국장·기획관리실장 ▲과학기술처차관

美、리비아石油 禁輸
安保會議결정 한달내 生産장비販賣도

【워싱턴26日AP=聯】레이건 미국대통령은 리비아로부터의 석유수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리비아에 대한 석유생산장비의 판매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미국의 소식통들이 26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이같은 조처가 미국가안보회의(NSC)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는 가다피정부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처의일환이라고말했다.

이소식은 이같은 미국의對리비아 석유수입금지및 석유생산장비 금수조처는 미국내 석유회사、유럽맹방및 의회의 협의를 거친후 약1개월 이내에 실시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리비아가 석유생산장비와 함께 민간및 군사목적에 이용될수있는 컴퓨터항공관제장비들도 미국으로부터 도입될수 없게될것이라고 말했다.

失踪언론인 찾자
國際赦免委촉구

【헤이그25日AP=聯】앰네스티·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 네덜란드지부는 세계 도처에서 실종된 언론인들을 찾아내기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네덜란드지부의 언론담당책임자한스·데·브레이씨가 25일 말했다.

平統세미나 開幕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주최 평화통일세미나가 26일하오 워커힐에서 국내학자43명이 참석한가운데 개막됐다.

民韓 후속人事단행
金在暎·朴寬用의원 부총무任命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6일 黨5役 개편에따른 원내및사무처의 후속인사를 단행, 5명의 부총무중 趙重衍(수석)·劉治根·睦堯相의원은 유임시키고 徐錫俊·金泰洙부총무를 更迭, 金在暎·朴寬用의원을 임명했다.

柳총재는 또 중앙당 사무처의 高炳鉉·李載根차장을유임시키고 총무、조직、선전、농수산등 4개국장을 경질하는 한편 기획실장및 黨報국장의 임명은 유보했다.

이날 개편된 사무처 간부들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총무국장 奇正舒(新) ▲조직부국장 趙鏞益(新) 鄭貞薰(新) 부국장 張勝熙(新) 源采(新) ▲선전국장 申炳培(留) 부국장 李洪熙 ▲사회노동국장 朴在弘(新) 부국장 安健一(新) ▲농수산국장 林泰鎬(留) ▲국제국장 朴錫華 부국장 金魯植(留) ▲청년국장 金德圭(留) 부국장 韓英淳(新) ▲부녀국장 張明淑(留) 부국장 黃山城(留)

鄕軍회장金鍾煥씨

재향군인회는 26일상오 서울앰배서더호텔 회의실에서 8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22대)에 金鍾煥씨(사진·전내무장관·예비역육군대장)를 선출했다.

또 이날 정총에서는 부회장에 白石柱(韓洋化學사장)、金圭燮(예비역육군대장)과 金萬富(전해군참모총장)을 새로 뽑았으며 사무총장에는 鄭名煥씨(예비역육군소장·한전상임감사)를 선출했다.

本社來訪

▲徐基源씨(서울신문監事) 신임인사차

메아리

『南北問題의 해결이야말로 世界平和에의 최대의 課題이다』— 이것은 前西獨首相 빌리·브란트의 말이다.

작년초 世界銀行이 발표한「세계개발보고」에 의하면 세계의「絶對的貧困」인구는 7억5천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금세기말에는 8억5천만명에 이르리라는 것이다. 國家간의 富益富·貧益貧은 촉진되고 있는 경향에 있는것이 이보고서의 결론이었다.

개발도상국의 對外債務總額은 10년전인 71년에 8백70억弗이었으나 81년에는 5천2백40억弗로 6배나 늘어났다.

『南』에 속하는 나라들이 破産지경이 된다고『北』에는 나라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南』이 쪼들리면 결국은『北』에 그 영향이 미쳐 經濟에 주름살이 가져오고만다. 世界貿易의 축소、生産減退、失業、인플레등등으로.

브란트의 주선으로 작년10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사상 처음이라할「南北정상회담」이 열렸다(정식호칭은「協力과 개발에 관한 國際會議」). 이회의는「決定」보다는「討議」에 목적을 두었고 또 討議만 하고 끝났다. 開途國에 대한 先進國의「救濟策」이 提示되었으나 開途國으로서는 단순한「救濟」에 차지 않았을뿐 아니라 그들의 主張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南』이 사전에 작전을 잘짜지 못했기때문에 先進國에(특히 美國레이건 대통령에게)『당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南南의 GN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印度뉴델리에서『南』에 속하는 44개국대표들이「南南會議」를 열었다. 그 결과 합의를 본 것은『유엔에서의 포괄섭(GN=글로벌·니고시에이션)』을 주장하고『신국제경제 질서』를 수립하자는것.

南은 세계경제구조가 국제통화나 금융혹은 무역에 있어 北을 유리하게 하고 있으므로『1國1票』에 의한 多數決이 통하는 유엔에서 南에 유익하게 고치자는 것이다.

그렇을때 IMF나GATT등 先進國경제를 떠 받들고 있는 국제경제질서가 성해 남을 턱이 없다. 작년 칸쿤頂上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GN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제『南』은 뉴델리에서 GN관철 쪽으로 거의 말을 맞추었다. 北이고 南이고「新經濟秩序」의 정신이라는「相互利益」과「人類的連帶」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對決」보다는「對話」가 잘 되어 나갈것인가 하는데 있다. 平和보장을 위해—.

社說

本色드러낸 北傀陰謀
—國際테러、世界輿論의 糾彈감이다

지난 24일 캐나다에서 적발된「全斗煥 대통령 암살음모사건」은 비열한 북괴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캐나다경찰이 밝힌 사건의 전모는 暗黑街에서나 있을까 싶게 야비하여, 우리를 아연케 한다. 이점은 세계의 여론도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 사건에서, 反韓 교포인 최중화는 국제테러의 前歷이 있는 캐나다인을 매수하고 있다. 범행자금으로 이미 6만8천달러를 지급했고, 범행뒤에는 다시 60만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중화는 조국을 등진 前將星 최홍희의 아들이다. 그는 음모를꾸미던무렵 아버지와함께平壤을 다녀왔으며, 유럽등지에서 북괴요원들과 자주접촉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위와, 그가 제공하거나 약속했던 자금의 규모로 보아, 그 배후가 무엇인지 짐작되고도 남음이있다. 더구나 사건수사가 진행되자 그들 부자가 북괴로 도피한 지금, 그들이 북괴 지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입증된것이나 다름없다. 캐나다警察도 이점을들어,「이 음모의 배후에 대한결론」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이 명백한 사실은 북괴가 어떤 집단인가를 여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즉 그들은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패屬性을 지녔다. 그들은 겉으로 理念을 앞세우지만,「國際解決士」와 손잡을만큼 鐵面皮하다. 그들은 국제테러음모를 서슴지 않는 평화의 교란자다. 그리고 그들은 이처럼 치졸한 음모의 성사가 가능하다고 믿을만큼, 국제사정과 한국사정에 어둡다.

그러함에도,우리는 근래의 저들 동태를 심상찮게 관측해오던 터다.우리측의 南北對話 노력이 가중될수록,저들은 한층 더 해괴한작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저들은, 우리측의 對話제의에 대하여, 우리측 대표자명단까지 지정해가며, 이른바「南北政治人聯合會議」를 내세웠었다. 對話를 하자면서, 상대방의 대표자를 지명하는 沒常識은 물째치고, 그 명단에는 이번 테러 음모의 진짜 주역으로 지목된 최홍희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북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다. 처음은, 본디의 습성대로, 이처럼 명백한 사실마저 잡아떼자고 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 하는결과가 된다. 될 그렇게 될수록, 그들의 속마음은 더욱 뚜렷해질 뿐이다.

근래 외신은 북괴가 세계최대규모의 비정규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을 동원하여 南韓전역에서 대규모 게릴라戰을 획책한다는 저들의 의도는, 바로 25일字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대로다. 이번국제테러음모는 이같은 戰備와 빈틈없는 表裏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평화를 위협하는 북괴의 本色이다.

더욱 유의할 것은 위에 말한 북괴의 평화위협은 비단 韓半島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북괴는 30여개국의 분쟁에 개입했으며, 전투요원의 파견은 물론, 6천명의 게릴라 요원과 국제테러분자를 훈련시킨 사실이 폭로된바 있다.그들이 평화의 公敵이라고 할 국제테러의 한 背後中心으로, 또 가장 과격한 테러분자의 후원자로 행세 해온지는 이미 오래다. 이번의 국제음모는 이같은북괴속성의 또 다른 한 편이다.

우리는 국제여론이 이점을 바로 보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우리로서도 국제여론앞에 이진상을 낱낱이 들추어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함을 생각한다.

다행히 이번 음모는 우방 8개국 경찰의 협력으로 미연에 발각이 됐다. 그러나, 이번 비슷한 文世光사건의 前例가 있음과, 북괴의 속성이 좀처럼 변하지 않으리란 짐작에 비추어, 저들이 제2, 제3의 음모를 또 꾸밀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비함에 소홀함이 없기를 다짐하면서, 특히 일부 해외동포들이, 해외에서 꾸며졌던 이 사건의 진장을 꿰뚫어 보기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五輪行裝에「無理」없길
—지나친 豪華版計劃 自制해야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政府組織法이 개정되어 體育部가 신설되면 서울에서 열릴 88올림픽과 그전의 86아시안게임을 향한 국민체육의 大躍進을 기약하는 行裝이 갖추어지는것이다.

本欄이 그동안 여러차례 言及한대로 올림픽경기 대회를 열기위해서는 경기장 선수촌 기자촌 프레스(신문·통신)센터 방송센터등을 비롯하여 수십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측되는 外國손님과 국제체육관계자들을 위한 공식시설및 숙박시설등을 알차게 건설하여야 한다. 그중 경기시설은 이미 거진 건설되었거나 약간의 擴張 또는 補修를하면 된다고한다.

그러나 대부분 民資로세울1만1천6백室규모의 선수촌과 기자촌을비롯하여 1만1천명이 숙수있는 신문통신 방송센터,10층규모의조직위원회건물, 1천5백명을 수용할수있는 유드캠프(青少年숙박시설)는 설계와 건설에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기본시설이라 할것이다. 미들 시설과 경기장건설및 改補修는 4년뒤와 6년뒤에 치를 大祭典의 큰 기반이 되는것임은 물론이다.

이외에도 갖추어야 할 有形·無形의 간접적인 채비 또한 必須的일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불원하여 體育部가 설치되는것과 아울러 이를 직접 간접시설建設의 實行計劃을 分野別및 年次別로 짜야 할것이다.

全斗煥 大統領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이를 大祭典을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 비용을 아끼고 국민부담을 최소한으로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단합하여 예의바르고 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의 문화수준과 참된 모습을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한다함을 강조한바 있다.

올림픽行事의 직접적수입은 텔리비전중계료와 기념주화및 入場料등인데 우리가 감당해야할 시설비의 규모에 비추어보거나 또는 이제까지 다른 主催國들의 경험에 의해보더라도 그 준비를 위한 경비는 수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物質的으로 흥청대는 내용으로의 올림픽준비는 금물로 알고 입을 진행하여야 할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금전상의 타산에서 赤字가 예상되는 民族의 祭典일진대,그 금액상의 赤字모를 가장 적게하기위한 努力과 아울러 無形的 分野 이를테면 文化·社會的인 面에서의 黑字를 極大化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믿어진다.

이런 관점에 설때에 작금 서울市를 비롯하여 中央各部署가 衆口難防格으로 五輪을 빙자하고 남발하는 여러 계획안들은 一抹의우려를 자아내게하는바 없지않다. 여기서 그런 여러계획에대하여 事例를들어 구체적으로 曰可曰否할 여백은없으나 계획안들중에는 올림픽개최에 便乘하여 재원과 비용의 고려없이 세운 百花齊放式 即興的 인것들이 섞여있다고 보기때문이다.

하기는 올림픽관계가 아니더라도 行政各部署가 하고자하는 일은 可用財源보다는 훨씬 더 거창한 것이 통례다. 이 해마다의 예산편성과 그확정과정에서 잘 보아온터이라 생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것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개인살림이나 나라살림할것없이 좋은 일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稅金을 재원으로 할 수 없으면 대안으로 民資유치방식으로 하려는 구상도 事業의 성질에 따라서는 民資가 적당치않은 경우가 있을뿐아니라, 총수요와 총공급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는 총자원예산은 民資인 경우에도 그 우선순위와 用處가 그속에 포함되어있는 사실을 도외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바라건대 體育部의 發足과 아울러 오는 7월까지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 올림픽개최준비 7년계획은 긴축기조의 原則에 따라 可用財源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꼭 필요한 것만을 分野別및 年次別로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알뜰히 그리고 질서있게 일을 진행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中進國에 속한다. 우리사정에 無理없는 범위에서 우리다운 祭典을 차려 大事를 치르는것이 가장 올은 길임을 다시 강조해두겠다.

政局往來

"대답 얻을수있는 質問은 해야죠"

◆과거엔 召集자체로 정력낭비

지난1월22일 全斗煥대통령의 國政연설을 듣기위해 소집된지 한달여만에 국회후 처음으로 열린 26일의 국회本會議는 丁來赫의장의 開會辭와 劉彰順국무총리의 國政보고에 이어 신임각료들의 인사로 간단히 끝났다.

丁의장은 개회사에서『과거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召集그자체만 가지고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가져와 그결과 민주정치의 발전이 停滯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있다』면서『이번 임시국회는 지난어느회기에 못지않게 알차고 수확있는 국회가 되도록 眞摯한 자세로 임하자』고 당부.

劉총리는 이날 인사를 통해『지난번 여러의원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본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면서『정부와 국회의 목적이 같은만큼 함께 모든 일을 도모하는것이 바람직하기때문에 많은충고를바란다』고했다.

이어 金俊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우리경제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려운것만도 아니니 소입을 다하도록 지도편달해 달라』고 부탁했고 다른 각료들도『주어진책임을 성실히 하겠다』(羅雄培재무)『소임을 다할것을 약속한다』(李喜根동자)『성심성의 일하겠다』(金宗鎬건설)『熱誠을 다해 일하겠다』(孫在植 통일원장관)고 각각인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선 대부분의 의원들은서로 자리를 옮겨다니며 반가움을 표하는 악수를 나누느라 개회가 잠시 늦어지기도했다.

◆劉총리、各黨대표실들며 人事

劉彰順국무총리는 26일 국회에서 國政보고에앞서 民正·民韓·국민등 3黨대표실과 議政同友會회장실및 丁來赫국회의장실을 차례로 순방하며 환담.

劉총리는 하오1시20분께 李載瀅民正黨대표위원을 찾아『점심을 먹고 시간이 남아서 들렀다』면서 李대표와 王相殷중앙위의장 羅碩昊정책위의장등과 악수.

李대표가 옆에 있던 羅의장을 보며『2일의 民正黨대표질문에서 羅의장이 총리를 괴롭히지는 않을것이라』고 하자 劉총리는 대답을 부탁하며『그러나 대답할수 있는 질문은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반문.

이 말을 듣고 劉총리는『같은 배를 타고 같은 곳으로 가는데…』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그후 20분간 密談을 나눴다.

劉총리는 이어 民韓黨 총재실을 방문한 劉총리를 보고 柳致松총재는『앞으로 며칠간 수고가 많겠다』고 인사했고 李泰九부총재는『경기의 회복세가 보이느냐』고 질문.

劉총리는『부분적으로는 잘되고 있다』면서『경영자가 좀더 가지고 종업원들과 同苦同樂할 의지를 가진다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텐데…』라고 아쉬움을 표시.

◆民正、금년을 국회법 定着의해로

民正黨은 26일하오 국회146호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李鍾贊원내총무는『현행국회법은 제5공화국 헌법정신의 산물이며 제도상에 순점이 없기때문에 금년한해를 국회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다해 달라』고 당부.

이어 權正達사무총장은 黨務보고를 통해『지역구의원들은 3대否定심리추방운동에 앞장서달라』고당부하고『아파트에 거주하는 의원들은 반상회에 반드시 참석, 黨의 노력을 확산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李載瀅대표위원은 인사말을 통해『우리는 그동안 常任委별로 國政현황을 파악하고 국면에 대처하기위한 지면을 갖추었으며 상황판단력을 기르는 모든 몇차례 가졌다』면서『이번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고 격려.

신세계를 건설할 재미동포를 찾습니다.

넘치는 의욕과 슬기로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여 약진 한국경제를 선도한 경남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토후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스리랑카, 카메룬등 7개국서 힘차게 공사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본사는 항상 인재를 아끼고 그 창의를 살립니다. 그리고 미려하고 정교한 공법으로 수행공사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지난해 자본금을 증액하여 세계적 규모의 건설회사로 뚜렷이 부상한 본사는 5대양 6대주에 걸친 시장 다변화 촉진과 병행, 의욕적인 재미동포를 새가족으로 맞고자 합니다.

1.모집분야 : (기술직) 건축, 토목, 전기, 건축설비, 플랜트 설비기사, (행정직) 계약업무 및 일반관리.
2.모집인원 : 각 분야 약간명.
3.응모자격 : 재미동포 또는 한국계 미국시민으로서 대학학사 학위 이상 학력을 갖고, 해당 전공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으면서 만 40세 미만의 사람.
4.제출서류 : 이력서(명함판 5cmx7cm 사진부착)…영문, 국문 각 1통. 이력서에는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주소 (4) 전화번호 (5) 출신지 (6) 미국이주년도 (7) 학력 (8) 경력 (9) 응모분야 (10) 근무희망지 (11) 가족관계 (12) 희망급여 (13) 근무조건등을 자세하게 쓸것.
5.대 우 : 경력에 따라 우대함.
6.근 무 지 : 미국, 서울, 중동, 동남아시아 기타각국.
7.전형방법 : 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여 면접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나) 면접장소 : 동부 : 뉴욕, 서부 : 로스엔젤레스.
8.서류제출처 및 기간 :
가) 접수처…42-22 27th St. Long Island City N.Y. 11101 U.S.A.
응모서류는 위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되, 편지겉봉에 반드시 "경남이력서"라고 붉은 글씨로 쓸것.
나) 기 간…1982년 3월3일-3월15일까지.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京南企業株式會社

"政權교체만은 合法的으로 이뤄져야"

海葦 尹潽善前대통령會見

지난 세밑에 이어 다시 찾은 海葦 尹潽善전 대통령은 85세의 年滿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年高力强한 건강색이 넘쳤다。

뜨락에서 마주친 海葦선생의 안내로 응접실로 들어서면서、때마침 출범 1주년을 맞게되는 제5공화국의 지난 1년에 관해 화제를 꺼냈다。

『벌써 1년이 됐군。지금 정부는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것 같아요。잘하든 못하든 양심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지。그런데 좀더 대담하게 정부가 和合정책을 썼으면 해요。朴정권때 독재를 규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풀어줘야 할텐데…』

朴正熙전 대통령을 구태여 「朴정권」、또는 「朴正熙씨」라고 부르는 그는 지금의 정부를 維新體制때와 비교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維新體制와 지금의 체제를 관련시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朴정권시대는 軍政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한번도 朴씨를 만나 얘기를 나눈적이 없지。그들은 나를 매수해 자기편에 가담시키려하거나 아니면 위협을 가해 추종을 하도록 脅迫…의 방법을 썼지。前職 대통령의 예우는 물론 국민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했단말야。그러나 지금은 달라。對話를 하자는 것이지。대화를 하면 서로 양보할수도 있고、또 싸울 필요도 없어요。과거 나와 反體制를 한사람들이 왜 싸우지않느냐고 하지만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물론 대화가 만족스럽게 이뤄지지는 않지만…』

尹전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관해서도 新體制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늦추지않았다。

『지금의 경제難局도 지난날 누적된 후유증때문이지。지난날에는 1백만원짜리 공장을 지을때 60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40만원은 爲政者、측근、심지어는 외국인까지 나눠먹었어。그런상태에서 불쌍한것은 국민뿐이오。겉만 멀쩡하고 속은 비어있는 상태가 돼버린 경제難局을 자초한 셈이지』

잠시 말을 멈춘 그는 기자에게 질문의 틈을 주지 않은채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있는 중앙日報紙등이 연재하고있는 「제3공화국」으로 얘기의 초점을 이어갔다。

『역사가 正史로만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산證人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릇되게 정리돼서는 안될것이오』

◇항상國民의 편에… 항상 국민의 편에서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는 海葦尹潽善前 대통령。

尹전 대통령은 「역사의 記述」에는 가치관을 가진 객관적인 자세가 기본임을 거듭 강조한뒤 자신을 둘러싸고 是非의 대목이 되었던 5·16직후의 속사정、국군 統帥權 발동관계、親書전달사건、政淨法의 決裁시비등 微妙했던 당시의 상황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5·16땐 「北傀軍 집결」 더 신경"

革命지지·戒嚴선포 追認 거절

누구든 失手있는것…잘하든 못하든 양심적으로 해야"

『5·16이 나던 새벽 4、5시께 張都暎 참모총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쿠데타가 났다」는 전화를 해왔지。한강교에서 저지하는데 실패를 했고 시내까지 進入했는데 상황히 대단히 불리하니 「각하께서 판단해서 행동해달라」는 내용이었소。직감적으로 「피신하라」는 내용임을 알수 있었지。

그순간 솔직한 심정은 쿠데타軍 보다는 38線쪽이 더 걱정이었어。바로 며칠전 연합사령부로부터 「38線에 북괴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있었기 때문이오』

매그루더 유엔軍사령관에게 『靑瓦臺로 들어오라』는 전화통화를 막 끝낸 이날 상오10시께 朴正熙소장、柳原植대령、玄錫虎국방장관등 3명이 청와대를 찾아왔다는것。

『朴소장이 「우리는 전에도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충성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도 젊은 妻子가 있읍니다만 나라 걱정때문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짤막한 경위설명을하더군요。그러더니 「仁祖反正의 경우와 같이 충성을 다하겠다」면서 2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소。

첫째가 혁명군 지지성명을 내달라는 것이고 또하나는 계엄령 선포를 追認해 달라는 것이었소。물론 두가지를 다 거절했지。비합법적인 절차에의해 국가의 장래를 맡길수는 없고 쿠데타는 결코 민주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었어요。계엄령의 경우는 「도대체 선포를해놓고 追認을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거절했다가 5월18일 내각이 총사퇴한뒤에야 追認을 했어요』

바로 이 과정에서 尹전 대통령은 政敵들의 표적이 됐던 『올것이 왔구나』 하는 발언의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그당시 2월 危機說이니、3월危機說이니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연일 데모대가 거리를 뒤덮는 불안한 政局이었소。장관들에게 「어째 방관만 하느냐」고 다그치면 「할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지。심지어 어느 장관은 「車가 언덕에서 고장이 나면 굴러가다 엎어지든 불이 타든 별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이것이 쿠데타 전의 政局이었고 이같은 분위기에서 「올것이 왔구나」하는 말이 나온게요。政局불안에 대한 우려가 돈소문대로 적중된 안타까움의 소리라는 것을 이해할수 있겠소?』

尹전 대통령은 朴소장 일행이 다녀간 직후 그린 駐韓美대리대사와 매그루더 8軍 사령관으로부터 『서울에 進入한 叛徒는 3천6백명으로 그10倍의 군인만 동원하면 포위해 섬멸할수 있다』며 국군 統帥權 발동을 간청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것。지금도 그 판단은 옳았다고 尹전 대통령은 회고한다。

『사실 護憲과 국가安危를 놓고 무척 방황을 했소。모두가 도피한채 수습 책임자는 나뿐이니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안타까움뿐이었어요。본국의 훈령을 받은 그린 대사와 매그루더사령관은 막무가내로 統帥權의 발동만을 독촉하고。그래서 매그루더사령관에게 38線의 움직임을 물었더니 이미 알고 있더군。여기서 나는 북괴에게 南侵의 기회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어요。설사 南侵의 위협이 없다손치더라도 국군이 정부군과 反정부군으로 나뉘어 銃질을하는 사태를 생각하니 統帥權의 발동은 거부해야된다고 판단이 서더군요』

尹前대통령은 보다 정확한 民心파악을 위해 16일 저녁 청와대로 白樂濬 卞榮泰씨、언론계 사장들을 불러 협의했으나 『모두가 걱정뿐이지 妙案은 없었다』고했다。

『모두가 방황할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民主黨정권이 국민의 지지기반을 잃었기 때문이지。

첫날밤을 뜬눈으로 보냈지만 확연한 판단이 서지 않아 17일새벽 비서들을 극비리에 제1군사령관 李翰林장군과 5개 군단장등에게 보내 親書를 전달했어요。「38線은 수호해야하며 국군사이에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自重할것을 당부했지。

그들의 答信을 받아보니 대부분이 중립적인 자세였지만 7명중 5명은 「진압명령이 떨어져도 서울로 들어갈수 없다」는 사실상 朴소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어요。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李장군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채 C군단장만이 「서울로 들어가겠다」면서 지도까지 그린 진압계획서를 보내왔지。C군단장의 계획서를 착잡한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비서를 통해 보낸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는 C군단장의 지급전화가 걸려오던군。大勢는 이미 기울어졌으며 남은 일은 희생을 줄이면서 수습하는 길뿐이었어요』

이뒤 海葦는 張勉총리등의 신분보장등을 받아냈고 18일 내각이 총사퇴하자 계엄령 선포를 승인한뒤 당일로 下野성명을 냈다。

『이를 관철치 못한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이었소。下野 성명을 내자 張都暎씨등이 달려와 「국제법상 유일한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없어지면 56개국 修交國과의 모든관계가 중단된다」「北傀軍이 내려올 경우 유엔軍이 지원할 법적 근거를 잃게된다」며 호소를하더군。정치 도의상 내모양이 말이 아니었지만 국가에 마지막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번의를 한 것이오』

尹전 대통령은 이른바 「사전密約說」에 대해서도 「바로 그게 정보정치의 대표적인 소산」이라고 한마디로 잘라 버린다。

『청와대를 떠난 서너달뒤 某 신문에 柳原植대령의 왜곡된 글이 실렸지。이틀날 그 신문사에서 찾아와 「시간이 바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면서 나한테도 글을 써달라고 하더군。

설사 반박을 한다 치더라도 논쟁에 휘말리다 보면 무슨 得이 있겠소。事必歸正만을 곱씹으며 참았지。

다시 말하지만 柳대령의 이름은 내친구인 沈命求씨(金用雨전국방장관의 丈人)를 통해 처음 들었어요。「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當在千내무장관을 불러 알아보라고 했더니 「張총리도 알고 있고 대수롭지 않은일」이라고 말하더군。이게 저들이 말하는 「사전密約」의 전부요』

尹전대통령은 정보정치의 惡夢이 되살아나는듯 또한가지 예를 든다。

『아니 글세 내가 트럭을 몰고가서 梨花莊의 물건들을 숨어 갔다는 얘기말이요。

靑瓦臺에 들어가보니 가구 집기는 물론 카페트 커튼에 세면기까지 모두 떼어 갔읍니다。중앙청 식당에서 밥을 날라다 먹었는데 국무회의에서 靑瓦臺물건을 회수키로 결정했지요。물론 靑瓦臺물건의 대부분은 밑에 사람들이 집어갔지만 일부는 梨花莊에서 절차를 밟아 회수해 오기도 했지。지난 일이지만 다급히 靑瓦臺를 떠나느라고 소중히 키웠던 花草 3백여개를 미처 가져오지못했어요。私物이기에 얼마뒤 돌려 달라고 했으나 안줍디다。

靑瓦臺 在任 1년8개월동안 5백여만원의 빚을 져 뒤에 갚느라 혼줄 났지요』

좀 쑥스러운듯 老顔에 미소를 머금은 尹전 대통령은 마지막 한마디를 잊지않았다。

『누구나 실수는 있게 마련이지만 國事를 다스리려면 私利私慾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그리고 政權교체만은 順理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李成俊기자】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17>

4人體制 침몰의 순간

10·2抗命波動

「吳內務해임」통과 榮辱엇갈려

主動者1·2號즉각懲戒지시

다。개표는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었다。장내엔 기침소리 하나없이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與野의원모두 숨을 죽이고 개표대위를 돌어져라 보고있었다。

71년10월2일상오、국회본회의장。당초 상오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뭔가 쫓기는 듯한 여당측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지연을 거듭、상오 11시반에 시작됐다。

3부장관중 맨먼저 金鶴烈기획원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이 否決로 끝나고 숨돌릴 틈없이 吳致成내무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개표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마지막 한줌의 표가 남았을까」、개표대 위에서 點票중이던 공화당 尹在明의원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거의 동시에 文太俊부총무가 앞좌석에 앉아있는 金鍾泌총리와 張坰淳국회부의장에게 다가가 귀엣말을 했다。

그순간 개표대부근에 있던 신민당의 李尙信부총무가 벌떡 일어나더니 2층기자석을 올려다보고 손바닥으로 목을 자르는 시늉을냈다。기자석이 갑자기 웅성거리면서 다투어 전화다이얼 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개표대를 응시하던 머리들이 일제히 기자석으로 쏠렸다。

야당의석에선 「와!」하는 함성이 터졌다。여당의석은 찬물을 끼얹은듯 고요했다。

신민당이 낸 吳내무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이다。可107、否90、무효6표。재적2백4명중 공화당1백10명、신민당89명、무소속2명등 2백1명이 투표한 결과다。

재적과반수103표를 4표넘는 「可」였다。적어도 여당의원만 22~24명이 「離反」했다는 계산이 나왔다。

가결을 선포하는 白斗鎭의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성을 잃고 갈라진듯 고양된 황급한 음성이었다。

白의장은 의사봉을 부러져라 힘주어 세번치고 산회를 선포한후 총총히 퇴장으로 사라졌다。

金총리는 잔뜩 굳은 표정이 되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나갔다。뒤에 안일이지만 그는 보고차 청와대로 갔다。

회의가 끝났는데도 상당수 공화당의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白南檍당의장、吉典植사무총장、金在淳총무、李秉禧무임소장관등등 당간부들이 넋나간듯 깊숙이 턱을괴고 일어날줄을 몰랐다。그 한켠에선 金成坤중앙위의장이 金昌槿、玄梧鳳의원과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吉在號정책위의장이 수고많았다는듯 여야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몸짓임이 색다르게 보였다。

야당에겐 快擧였고 여당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소위 「10·2抗命波動」이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잠차 議政史에 일대 受難의 폭풍을 몰아치게 하리라는 與도 野도 거기까지는 내다보질 못했다。

당시의 고위당직자였던 K씨(5·9대의원)의 말。

『朴대통령의 영도권에 대한 抗命의 성격이라 당의 장래가 심상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後날 維新으로 전개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지요。그러나 당시 국회의원들이 불려가 욕을당한데 대해선 민주헌정에 弔鐘을울리는것같은 생각이었읍니다』

그의말대로 함명혐의를 받은 공화당의원들은 제3공화국시대 일찌기없던、여당의원으로선 議政史上 최초의 가혹하고 모욕적인 수난을 당했다。

국회투표가 있은 그날하오 청와대는 고요한듯 했다。朴대통령은 金鍾泌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뒤 말없이 교외로 나가 산책했고 방엔영화를 보고、추석인 그 다음날도 교외로 나갔다。그러나 청와대의 고요는 폭풍을 감춘 태풍의눈이었다。

실상 함명주동자제거의 엄명은 吳내무표결직후에 나왔다。朴대통령은 본회의가 끝난후 국회당의장실로 전화를 했다。

『죄송합니다。각하』白南檍당의장이 전화를 받자 무섭게 朴대통령은 『黨紀委를 열어 金成坤이를 징계하시오』라며 딱잘라 지시했다。

잠시후 다시 전화가 오더니 『吉在號도 징계하시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날 주동자 1號、2號를 下命한 것이다。

白당의장은 앞서 이날 새벽아무도 몰래 청와대를 방문해 심상찮은 黨內분위기를 전했다。

그때 朴대통령은 『공화당은 결속해서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도록 하라』는 이틀전의 지시를 상기시키고는 「抗命」을 경고했다。

청와대의 주동자 징계지시가 있은 얼마후 함명혐의를 받은 의원이 하나、둘 某處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2일밤늦게부터 시작、3일하오내지 4일까지 30~40여명이 연행됐다。

일을 주도한 4人體制의 兩巨頭 金成坤、吉在號의원과 4人체제의 別동대장격인 金昌槿、康誠元、文昌鐸의원은 말할것도 없고 金振晩재정위원장、文太俊、申光淳의원등…「4人체제」系의원외에도 비교적 中道로 처신했던 申洞植대변인도 조사를 받았고 金在淳총무도 파동의경위와 관련、조사를 받았다。

연행된 의원들중엔 신체적인 受侮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조사내용의 핵심은 抗命의 동기、지시、연락、야당과의 內通여부、자금관계등이었다고 한다。

4人체제 수뇌들이 吳내무를 불신임하기로 극비리에 방향을 정한 것은 국회표결 3、4일전이었다。그 시기라면 新民黨총무단이 9월28일 앰배서더호텔에서 3部장관 해임방침을 세우고 다음날아침 뉴서울호텔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2일 해임안을 내기로 최종 결정을 했을 때 쯤이다。당시 야당은 전략상 이 결정을 극비에 붙였으나 4人체제쪽에서는 알고있었다는 얘기다。

당시의 한 여당의원은 『야당이 3부장관해임건의안을 내기전 최종결정을 極秘에 붙였던것은 결국 이미리 계산한 4人체제의 전격작전을 지원하고 공화당총무단의 당내 결속통제를 막는 결과가 됐다』고 말한다。

신민당은 9월30일 金鶴烈기획원장관、吳致成내무、申植秀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냈다。金장관은 불가고、申법무는 사법파동의 책임으로、그리고 吳내무는 8·23實尾島난동사건、廣州단지사건、韓進빌딩난동사건등으로 사회질서를 혼란케했으며 치안공백상태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金在淳공화당총무는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3장관에 대한 질의권이 있었는데 金장관 申장관에 대해선 신랄했으나 吳장관에 대한 질의전개는 별로없었다。야당의 건의안은 공화당내 內紛을 이용하려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권력의 갈등、그것은 黨權을 쥔 강력한 4人체제가 反4人체제인 金鍾泌총리중심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직접적으로는 JP系의 吳致成내무가 4人체제에 가한 「受侮」

71년 양대선거가 끝난뒤 3期집권에 들어선 朴대통령은 6월3일 金鍾泌총리를 앉히고 3選改憲에 공헌한 白南檍、金成坤、吉在號、金振晩 4人체제중심의 黨과 JP내각이 적어도 외형상 균형을 이루게 했다。

그러나 살얼음같던 균형아래서 吳致成내무장관이 「高齡」이라는 명목아래 전국의 郡守와 경찰서장에 대해 정리성격의 대대적인 人事이동을 단행함으로써 파란이 일어났다。당시까지 군수와 시장의 人事에는 공화당의 실력자와 초선의원들의 입김에의해 좌우되다시피해왔다。

특히나 黨權을 장악한 4人體制의 영향력은 곧 이들에대한 영향력으로 직결됐는데 吳장관이 전례없이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하자 4人체제로서는 자신들의 手足을 잃는 셈이고 이작업을 곧 정치적 중대挑戰으로 단정、반발과함께 호시탐탐 반격을 노려왔던것이다。

4人체제나 反4人체제는 모두 4·27선거종반 「앞으로 4년동안 공화당안에 유능한 후계자를 양성하겠다」고한 朴대통령의 말과 관련、75년을 향해 저마다 꿈이 있었다。

이런 실정이었으니 4人체제가 「그들의 손발을 자르는」 吳내무의 정리작업을 가만히 보고있을리없었다。

◇4人體制와 反4人體制간의 격돌로빚어진 10·2波動은 공화당에 暴風을몰아왔다。사진은 국회에서 4人체제의 공작으로 吳致成내무장관(中央)해임안이 가결된후 金在淳총무(右)와 吳장관、尹在明부총무(左)가 중앙청의 총리실을 다녀나오고있다。

4人체제의 「음모」가 총무단의 레이다에 걸려든 것은 10월1일 국군의날 慶會樓파티에서였다。이날 파티에선 金成坤중앙위의장、吉在號정책위의장이 참석、共和黨의원들과 뭔가 「密約의 릴레이」를 하고있었다。한 의원이 金在淳총무에게 첫 보고를 했다。『慶北출신 H의원이 「吳致成이를 날려야겠다」는 말을 여의원에게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金총무는 부총무들과 함께 그날밤 조선호텔에 진을치고 밤새 비상점검을 했다。4人체제와 그동조자들 집에 연락해보니 밤늦도록 아무도 안들어왔다。白당의장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illegible] 다。그때 白당의장은 밤사이 자들을 설득하고 청와대를 오가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인 2일새벽 某기관의 金東根차장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밤새 동향이 이상한데 알고있느냐』는 것이었다。『李厚洛부장은 뭐라하더냐』고 물으니 그는

「폭풍의눈」감춘 青瓦臺…議員30~40명 受難

『부장이 동향이 심상찮다고 해서 연락을 한다고 했다。李厚洛부장이 『절대 안심하란』고 큰소리쳤던게 바로 어제아닌가。

金총무는 국회에서 표결하던 當日아침에야 국회에서 白당의장을 만났다。

『白의장님。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안됩니까。의총에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무척 고민에잠긴 얼굴이었다。

이미 줄을 놓쳤다는듯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마침 金成坤씨가 들어왔다。

『吳내무불신임의 명분이 없읍니다。그가 못마땅한 짓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吳내무가한게 아닙니다。표가 갈리지않게 통일합시다』

金총무의 간청에 그는 묵묵부답이었다。의총에 들어가기전 金成坤씨는 벌떡 일어나면서 『金총무의사에 따를 수없소』『吳致成이는 안돼!』라고 내뱉고는 자리를 떴다。

그로부터 10여일 지난 10월13일 저녁、金成坤씨의 新門路자택에 白南檍당의장、吉典植사무총장、申洞植대변인등이 방문해 「정치적死刑」을 당한 그를 위로했다。

『省谷、자넨 왜 내말을 듣지않았나…』

白당의장의 목메인 말에 그는 『순간적인 판단잘못으로 동지와 충직한데 면목이 없구먼。내가 자유당때 한분어른을 모셨지만 그때는 그저 그렇고 이번에는 한분어른을 전심전력 모셨는데…』하고는 눈물을 지었다。白당의장은 그의 손을 붙들고 같이 울었고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권력앞에 榮과 辱이 엇갈리는 비극의 잔인하고 기약없는 政治無情、권門前交代劇。

舊主流를 파산시키고 全盛을 구가하던 4人體制가 정치曲藝에 누가 저 몰락의길을 걷게될 줄이야 빠 집작했겠는가。어떻게보면 反4人체제도 마찬가지 였다。

10년을 바쳐온 金成坤 중앙위 의장、吉在號 정책위 의장은 脫黨권유라는 형식으로 쫓겨났고 金昌槿、文昌鐸、康誠元의원이 6개월 停權처분을 당했다。吳致成의원도 黨論분열조성을 이유로 6개월 정권처분을 당했다。

朴대통령은 당내친격투쟁에 있어 절묘한 用兵術을써 균형과 견제의 지배를 했다。결코 어느쪽도 한도이상으로 세력이 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한 세력이 너무 隆起하고 더욱이 「野心의 에너지」를갖고 있을 때 그것은 절대 금물이었다。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내고향 통닭집

〈오늘의 메뉴〉
전기구이 통닭 오뎅, 가깨우동
곰탕, 설농탕, 김밥
생선초밥, 빈대떡, 만두등.

영업시간 : 아침 10시~새벽 1시
전화번호 : 537−0432
658½ BLOOR ST. W.
대표 : MRS. 리
MANNING BLOOR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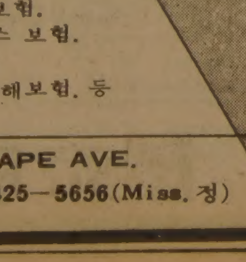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 ◎전자 CASH REGISTER
-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 ◎각종타자기
-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피의 中食시간…16층 行長室 처참

무모한犯行에 전율…곳곳에 破片

秘書室집기등 박살… 明洞일대 수라장

犯人신원열쇠는 채취된 손바닥指紋뿐

韓一銀사건 詳報

대낮 서울도심 고층빌딩에서 터진 폭음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점심시간 거리로 나왔다 폭음을 듣고 달려온 많은 시민들은 자폭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행의 무모함에 전율하면서도 범행이 행원들이 일하는 본점 사무실에서 벌어지지않아 인명피해가 적어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사고가나 남대문로와 명동입구일대는 출동한 경찰의 통행제한으로 1시간30분동안 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현 장…… 범인이 폭사한 행장실과 비서실은 핏자국과 살점이 흩어져 있고 집기가 나뒹굴어 처참했다.

범인의 시체는 비서실 한가운데 눕혀진채 복부와 허벅지부분이 두동강이났고 왼쪽 손목도 잘려나갔다.

비서 姜씨는 오른쪽발목이 잘린채 자신의자리에서 1m 떨어진 카피트위에 쓰러져있다가 뒤에 숨졌다.

姜씨가 범인을 껴안은 비서실중앙부분의 카피트는 폭발당시의 파편으로 지름1m 가량이 발기발기 찢어졌고 카피트밑 타일을붙인 바닥에는 지름2~3㎝ 크기의 파편자국이 40여개나 나있었다.

또 범인의 시체옆에는 범인이 갖고왔던 빨간색 스웨이트백과 푸른색보자기 붉은 색소총용 가방등이 널려있었다. 비서실 출입문과 책상소파등 집기는 크게 부서졌고 은행장실로 통하는 좌측문도 반쯤 부서졌으며 천장의 내장재일부도 떨어져나갔다.

……수 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직후 정밀현장감식을 실시, 가로3㎜, 세로2㎜의 4각형 파편10여개와 불규칙하게 일그러진 납덩어리 10여개를 수거하고 범인의 오른손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경찰은 카피트 바닥에 파편흔적 주변이 검게 변해있는 것으로보아 폭발력이 강한 흑색화약과 납덩어리 쇠조각등을 사용, 사제로 만든 폭발물인 것으로 단정, 부품들의 출처를 캐고있다. 또폭약을다룬 경험이있는 탄광노무자, 군관계 경력자등 전과자를 중심으로 수사도 펴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지검형사3부장 申鍵洙검사가 나와 사고현장을 지휘했다.

……韓一銀行…… 금융가1番地 21층

韓一銀行은정부의 금융자율화정책에 따라 작년7월 민영화됐으며 대주주는 大林·韓一合織 일선신약등이다. 商業銀行이 선발로 민영화됐으나 정부의 영향력을 받는 부여협회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민영화은행은 韓一銀行뿐인 셈인데 작년 민영화이후 의욕적인 경영을보여 납입자본금 9백억원에 당기순익 2백7억8천5백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한일은행이 옛날건물을 헐고3년간의 공사끝에 신축을 마치고 작년8월15일 입주했으며 금융가의 중심지인 남대문로2가1-3(0)에 가리하고 있다.

21개층 가운데 15층과 16층은 임원들이 쓰고있으며 이번 사고의 범인이 처음 찾아간 金甲錫이사의 방은 15층에 있고 사고가 난 행장실은 16층에 있는데 평소 29명의 청원경찰이 경비근무를 해왔다.

◇달려온 姜비서부인 숨진姜씨부인 金福俵씨가 참변소식을듣고은행에 달려왔다가 행원들의 위로를 받고있다.

"地震인줄 알았다"

行員·인근行人 혼비백산

……주 변…… 10여평가량에 5개의 책상이 놓이고 붉은색 양탄자가 깔린 행장비서실은 폭발로 책상, 타자, 소파등 집기가 크게 부서졌고 출입문, 천장등 내장재가 날아가 부서졌다.

사고순간 17층 탕비실에 있던 청소원 安光淑씨(43·여)는 『탕비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나면서 천장으로된 건물이 흔들리는순간 놀라 비상구쪽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또 21층식당에서 식사를하고있던 청원경찰 安熙俊씨(48)도 1백여명이 식당에서 점심을먹고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 『지진이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연락을 받은 은행청원경찰과 임·직원들은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를 수습하는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점심시간이어서 외출중이었고 점심을먹고 은행으로들어오던 행원들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사고소식을 알기도 했다.

또 인근 백화점과 명동등 도심의 한낮 인파들로 통행이막혀 불편을 겪었으며 1시간30분뒤 교통차단이 풀린 뒤에도 인파와 차량에 대한 통행정리로 한동안 주위가 부산했다.

한편 사고후에 열린 정기주총은 평온하게 진행됐다. 주주들은 사고에대해 일체질문하지 않았고 주총은 아무일이 없었던것처럼 진행돼 35분만에 끝났다. 예정대로 2명의 임원을 선임하고 16%의 배당도 의결했다.

責任感의 사나이

부인은 卒倒…어린아들 惨事몰라

숨진 姜비서주변

……숨진 姜信秉씨…… 범인을 덮쳤다가 숨진비서 姜씨는 책임감이 강한행원으로 범인을 그냥놔둘경우 혹시라도 은행장이나 은행에 피해가날것을우려, 범인을덮친것으로보인다.

姜씨는 62년 경기상고를졸업하고 곧장 한일은행에 입사, 재직중 한국외국어大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4월 차장급으로 승진, 행장비서실 비서역으로 옮겼다.

임원부속실 총무 田學秀씨(32)는 姜씨는 평소『자신이 맡은 일은 무슨일이 있어도 끝맺음을하고 비리나 부정을 참지못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부인 金福俵씨(34)와의사이에 秦守(6) 秦成(4) 2아들을 뒀다.

姜씨의 집인 서울江西區禾谷洞 산70의13 宇信아파트20동104호에는 부인 김씨가 이소식을 듣고 졸도, 누워있었고 姜씨의 노모 金貴粉씨(63)와 친지1명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고 두아들은 아버지의 참사소식을 모른채 밖에 나가 놀고있었다.

어머니金씨는『사고경위에 대해전혀듣지못하고있다』면서 낮2시방송에서 아들의비보를듣고 며느리가 졸도했다며 목을놓아 울었다.

강씨집은 24평짜리 아파트로 지난80년5월에 이사했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소형버스 登錄싼 웃돈거래 監査

속보=서울시는 26일 소형버스등록을 둘러싼 자동차관리사업소직원들의 웃돈거래여부를 가리기위해 자체감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상오7시본청 감사관실 소속감사계원 12명을 서울江南區三成洞 자동차관리사업소로 파견, 직원들의 비위여부와 소형버스 등록제도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감사담당자는 조사결과 직원들의 비위가 드러나면 징계하고 등록제도자체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全大統領 危害음모적발

北傀사주 캐나다人 둘체포

배후 최홍회 아들 평양도주

아들 崔重華가 착수금 6만8천불 건네

【터론토26日=金明奎】 캐나다경찰은 25일 한국의 全斗煥 대통령위해음모사건 전모와 함께 음모에 가담한 캐나다인 찰즈·스테판·야노버(36·터론토거주)와 알렉산더·마이클·게롤(33·〃)등 2명을 체포하고 이음모를 주도한 캐나다거주 한국인 崔重華(28)도주,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崔는 캐나다시민권을 갖고있으며 전한국군 장성이며 말레이지아 대사를 지낸뒤 캐나다로 이민간 崔泓熙(64)의 아들이다.

◇犯人게롤

◇犯人야노버

경찰발표에의하면 崔는 몇몇 북괴인들과 공모, 스테판·야노버등 캐나다인 3명을 음모에가담시켰으며 이들에게 이미암살착수금으로 6만8천달러(한화약4천8백만원)를 지불했다.

캐나다 경찰의 로스·오크는 『崔가 북괴인들과함께 일해왔으며 위해공작 착수금의 조달방법등으로 봐 음모의배후는 당신들스스로가 결론내릴수 있을것』이라고말해 이사건이 崔가사전에 북괴비밀공작책과 내통하여 꾸민 국제적위해음모사건임을 시사했다.

경찰은 이위해기도가 언제 어디서 단행될 계획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캐나다에서는 全대통령이 트뤼도수상의 방한에대한 답방형식으로 곧 캐나다를 방문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아 그 때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경찰을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서독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마르티니크 한국등 9개국경찰이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끝에 전모가 밝혀졌다.

사건수사는 터론토의 한변호사가 캐나다국립경찰에 이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롯됐으며 주범인 崔는 수사망이 압축되자 지난1월 북괴로 도주했다.

캐나다경찰은 주범 崔가 접촉해온 터론토거주 한국인의 가택을 수색하고있다고 밝혀 수사진전에따라서는 음모에 가담한자가 더있을것으로 보였다.

범인들은 위해음모 사건이 실행에 옮겨졌을 경우 북괴로부터 60만달러를 추가 지급받을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음모가담자중 스테판·야노버는 지난해 미국의 백인과격단체인 쿠·클룩스·클랜(KKK단)과 공모,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공화국정부를 전복하려한 혐의로2주전체포돼 구속돼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업적인 국제테러리스트이다.

경찰은 터론토의 崔泓熙자택에서 이위해기도에 관련된 몇가지 증거물도 압수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캐나다인 범인들이 6만8천달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범崔와 배후조종자인 북괴공작원들을 속일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있음도 밝혔다.

이들의 위해음모는 터론토시 미시사가街와 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저격수로 채용된사람은 현지주민이었다.

6개월간 치밀한 搜查결과

◇全대통령 암살 음모 사건을 발표하는 安應模치안본부장。

安치안본부장 밝혀

安應模치안본부장도 26일 캐나다 국립경찰이 한국경찰을 비롯한 8개국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범인2명을 검거한 全대통령위해 음모사건 전모를 발표했다.

全大統領 訪比때 危害음모 없었다

【마닐라26日聯合=特約】 필리핀은 全대통령이 필리핀을방문했을당시 어떠한 全대통령위해음모도 알지못하고 있었다고 정부소식통들이 26일말했다.

그러나 全대통령 방문당시 공식발표 스케줄이 마지막순간에 바뀌어 위해위협이 있을수있다는 추측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악명높은 國際테러리스트 雇傭

작년 東南亞 순방때와 加방문시기 노려

美3K·마피아團…外國정부 전복 企圖

【터론토=金明奎 지사장】 全대통령 위해음모사건 합동수사반은 캐나다 연방경찰(RCMP)과 온타리오경찰 및 터론토경찰국 수사진으로 구성돼있다.

특별수사반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거사일자를 지난해 6월말 全대통령이 동남아를 순방했을때와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및 트뤼도 캐나다수상의 한국방문후 답방형식으로 全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할때등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수사반의 공식발표가 있은 뒤 이곳의 각 일간지와 방송들은 음모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터론토의 3만여 교민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했고 영사관등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한편 부인은 전모가발표된 뒤 기자의 전화를받고『남편이 어제 집을 나갔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한뒤 전화를 끊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유일한 한국인崔는 71년이후 캐나다에 거주해오면서 룸비·인터내셔널이란보석제조회사에 근무해온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당중 체포된 스테판·야노버는 오랫동안 지하범죄조직에 가담해왔고 지난 70년대 초에는 터론토지역의 건설업계 폭력단 주역이기도 했다.

또 수배중인 클러저맨은 마피아 단원으로 63년50만달러어치의 다이어먼드 밀수업 혐의로 체포된적이 있다.

클러저맨은 영국귀족의 부인을 총으로 위협, 다이어먼드를 탈취하기도했는데 70년대초부터는 2백50만달러 다이어먼드 국제사기단사건의 터론토책임자로 암약해왔다.

◇崔泓熙 (오른쪽)、重華 (왼쪽) 부자가 지난80년9월 북괴방문길에 터론토공항에서 찍은 사진。【한국일보 터론토 支社=製】

3만여 僑民경악

변호사가提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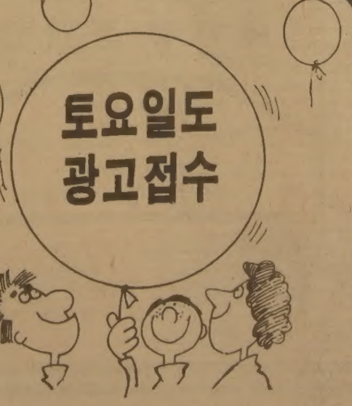
親北傀교포 수색

【터론토=柳承珉·趙美來기자】 캐나다경찰은 캐나다거주 친북괴교포들의 가택을 수색중이라고 밝혀 수사진전에 따라서는 음모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인물이 늘어날것으로 보여지고있다.

한편 25일상오10시부터 온타리오州 지방법원 23호법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범인들의 변호사는 오는3월4일로 재판을 연기해주도록 신청했다.

변호사들은 또 게롤의 보석신청을 3월1일, 야노버는 3월8일에 내기로 했다.

533－2361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쪽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배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사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2,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MLS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아침에

歷史의 時間的 距離感覺

먼 過去는 憧憬、가까운過去는 배척하는가

요즘 도하4대신문은 약속이라도한 듯 한면의 반이상을 매일할애하여 第3共和國의 秘話를 연재하고 있다。제3공화국의 비화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엮어 나가는 이 연재기획물은 읽을거리를찾는 독자에게 읽을거리를주고있을뿐아니라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한국신문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제3공화국 비화로 독자는 읽을거리를 얻고 신문은 활기를 되찾았으니 이 시리즈야말로 침체한 한국신문에 새 活路를 열어 주고 있는것이 된다는 긍정적평가도 가능해진다。그러나 제3공화국비화시리즈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조금만 깊이있게 분석해 보면 이연재에 내포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두드러져 나타난다。

무엇보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시간감각이 마비되어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3공화국비화는 불과 20년전의 사건을 기점으로하여 전개된다。다시 말해 지난 20년의 기간을 현재와 단절된 과거로 보기에는 지난 20년간의 일들이 너무 현재의 일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다。현재와 분리된 과거로 객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현재와 밀착된 가까운 과거를 먼 과거의 역사를 기술하듯 객관화시키려는데 제3공화국비화시리즈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제3공화국비화를 읽으면서 필자는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다는 생각보다 정치挾話에서나 맛볼 수 없는 재미를 즐긴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제3공화국시대의 사건들은 어느것이 현재와는 관계가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어지고있으며 이를 읽는 독자들도 흥미진진한 정치드라마를 관람하듯 정치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즐기는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것같다。독자는 신문도 역사에대한 시간적 거리감각이 마비된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한다。

어제가 옛날이란 말을 실감있게 느껴야할만큼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하지만 도하日刊紙가 바로 어제의 일들을 이토록 매일같이 大書特筆로 일깨워 주어야할만큼 우리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 건망증 환자들인가? 그렇지않다면 지난20년간 우리는 너무나 미래지향적 자세로 앞만 보고 살아왔기에 미처 뒤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일까?

시각을 바꾸어 정치비화공개러시현상을 정치형태적 면과 결부시켜 본다해도 개운치 않은 여운은 그대로 남는다。남한이 북한과 다른 점은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을 통제하지 않는 개방체제를 택하고 있다는데 있는줄 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 日刊紙들이 몇백회씩 연재할 만큼 많은 비화들이 공개되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에 파묻혀 있었다는 사실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좋은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권력자들이 벌이는 정치극은 두꺼운 안개속에 가리워 외부에서 그 변화를 엮기가 어렵다。그러나 시간이 흘러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 추측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이 하나 둘 그 정체를 드러낸다。따라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변화를 시간이 경과한후 비화의 형식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될 수 없다。

국가이익이걸려있는 외교문서는 상당기간동안 공개하지 않는것이 상례다。그러나 중요한 국내의 정치적사건과 변화를 비화의 형식으로 뒤늦게 알게되었다는것은 지난20년간의 정치중 상당부분이 장막속에 가리워진채 비밀리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것이된다。

그렇다면 이유야어떻든 신문은 반드시 알려야할것을 제대로 알리지못한것이되고 또 국민은 알권리가있는것을 알지못한 상태에서 지난20년을 살아온것이 된다。

중요 日刊紙가 가까운 과거의 정치적사건을 비화로엮어 연재했다는 전례를 선진외국에서는 찾을수없다。왜냐하면 중요한 정치적사건이 발생되면 곧 보도하기때문에 비화공개라는 後時的방법에 의존할 필요가없기때문이다。이렇게 볼때 우리신문은 지난 20년간 보도매체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못한것이 되거나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상황적조건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것이 된다。

한편 신문이 수행해야할 바람직한 기능면에서 본다해도 정치비화의 연재에는 문제점이있다。그렇잖아도 우리신문은 週刊誌나 月刊誌같이 과거지향적기사를 너무 많이실어 신문이 잡지화되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치비화까지 끼어들어 새로운소식을전하는 지면은 더욱줄어들고 말았기때문이다。

우리가 태평성세에 살아 신문이 새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거리가없다고 한다면 옛사건을 들추어 보도하는신문을 나무랄수가 없다。그러나 찾아보면 새소식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사건을 보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문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있다는 비판을 면할길이없다。

제3공화국비화의 연재가 신문의바람직한 기능에 맞는다고는 할수없지만、역사의뒤안길에 파묻혀있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記述한다면 역사편찬의 산 자료가 될뿐 아니라 건망증이 심한 우리들에게 역사적교훈을 줄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수 없다。

따라서 이 연재물의 취재반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다른 신문과의 경쟁을 의식하여 흥미를 주는데 치중하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행적이 어쩔수 없이 과장·왜곡·변형될 위험성이 생긴다。

광복 20년간의 정치야화를 세미·다큐멘터리라는이름으로 라디오를 통해 연속하여 방송한 일이 있다。하루는 택시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사와함께 듣게 되었는데 이 프로를 듣는 기사는 흥분하여 등장인물중의 한 사람인 自由黨정권때의 국방부장관 申모씨에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닌가。놀란 필자가 그까닭을 물어보니 기사는 그것도 모르냐는 투명한 말투로『趙炳玉박사와 같은 훌륭한 정치인을 간신과 같이 李박사에 모함하지 않았느냐』고 반문 하면서 申모씨의 목소리는 간사한 내시의 목소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필자가 申모씨의 肉聲을 언제들어보았느냐고 다그쳐 물었더니『당신은 지금 라디오로 들으면서도 그런느낌이 없단말이오?』라고 대답했다。두말할것도없이 라디오에서 들은 申모씨의 목소리는 그의역할을 맡은 성우의 목소리였다。

이 프로그램의 작가와 연출자는 될수있는한 재미있게 역사적사건을 구성하여 청취자에게 들려주려는 생각에서 등장인물들을 극단적으로 類型化했던 것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컸다。다시말해 이 프로그램은 역사라는 이름하에서 역사적사건과역사적인물을 잘못 가르치는 오류를 범한 것이된다。

제3공화국비화를 읽으면서 필자는 그때 인기리에 방송된 그 라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범한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기우를 털어 버릴수 없다。제3공화국비화의 사건들이 너무나 가까운 과거에 발생한 일들이라 시간적거리를 갖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증인들이 아직 생존하고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을수 있기 때문이다。증인의 이름을 匿名으로 처리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은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 史實性을 결여하고 있다는 증거다。이 경우 상반된 증언이 있을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과거의 사실을 유례없이 명백히 밝힐수 있을때 그 증언이 역사적 자료로 채택될수 있다는 것이다。

제3공화국의 비화를 엮어 나감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사건이나 인물의 옳고 그름에대해 섣불리 가치판단을 내리거나 그런 기준을 독자에게 제시하려는 태도를 취해서는안된다는 사실이다。사건을 객관적으로 記述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시비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억울한일을 당하고도 침묵만지켜온 사람들의 속사정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李相回 〈延世大교수·新聞放送學〉

물론 중요日刊紙들이 게재하고있는 제3공화국 시리즈의내용을 강건너불구경하듯 관망하며 즐기겠다는 태도에도 문제점은 있다。제3공화국비화속에는 다 아물지못한 상처가 여기저기 남아 아직도 우리의 살을 여미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을 놓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을 가려 내는데에서 역사적교훈을 찾을것이 아니라 과거의 범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세에 역사적교훈이 깃든다고 보아야 할것이다。제3공화국비화를 읽으면서 필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해 왔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만약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동안에 낭비한 노력과 정력을 처음부터 올바로사용했더라면 국가발전의 속도를 더 加速化할수 있었을것이 아닌가?

능률과 효율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률이라는 미명아래 저질러진 온갖 非理와 不條理를 必要惡과 같이 합리화하여 용인하는 시행착오와、한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른 분야의 발전을 희생시키는 跛行的 발전을 어쩔수 없는 일로 체념하는 시행착오를 우리는 너무나도 반복해 왔다。이제 우리는 제3공화국 비화가 가르치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역사가 먼과거를 동경하고 가까운 과거를 배척한다해도、역사의 교훈은 먼과거보다 가까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가까운 과거의 역사를 먼과거의 역사처럼 느끼는 마비된 시간적 거리감각을 가진 국민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제3공화국비화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있다。

컴퓨터 미니辭典

◆비트(BIT)=데이터의 길이 기억 용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컴퓨터는 2진법으로 계산한다。이때문에 기억도 2進數의 0이든지 1로써 헤아린다。이중의 한자리를 비트라고한다。정보의 最小단위인 셈이다。즉 1비트는「예」「아니오」둘중 하나를 나타낼수있다。2의 제곱의 형태로 2비트는 4개、3비트는 8개、4비트는 16개의 상태를 표시、즉 16개를 판별할수있는 능력을 갖는다。BIT는 binary digit의 약자。

◆바이트(BYTE)=8비트를 정리해서 1바이트라 칭한다。1바이트는 2의8제곱으로 2백56가지의 구별을 할수있는 능력을 갖는다。대체로 1바이트로 英字·수자·기호등을 나타낼수있다。

◆단말장치(Terminal)=컴퓨터두뇌부분으로부터 떨어진곳에 입·출력장치를 붙인것。이것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한 온·라인 방식으로 컴퓨터를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다。온·라인설치가된 은행의 각지점에 있는 컴퓨터박스가 단말장치다。

◆시뮬레이션(Simulation)=실제의 모양과 작동을 모형을 컴퓨터 스크린에 만들어 이모형으로 현실에서 할수없는 실험을 하는것을 말한다。기계설계와 실험、경제정책의 사전조사등에 이용된다。

◆마이컴(Micro Computer)=演算·제어장치를 하나의 대규모집적회로(LSI)로 구성한 超소형 컴퓨터다。현재 기억소자의 발달로 소형이지만 엄청난 기억용량을 갖게돼 컴퓨터를 상업화하는데 큰기여를 했다。현재 국제시세로 대당 가격은 60만원정도부터 6백만원정도까지다。

◆LSI(Large Scale Integration)=고밀도집적회로 또는 대규모집적회로라고 불린다。실리콘기반위에 다수의 트랜지스터、콘덴서、저항등의 전기회로를 집적한것이 IC이고、이보다 집적도가 높은것이 LSI다。IC는 50개이상의 트랜지스터기능을、LSI는 5천개 이상을、초LSI(VLSI)는 20만개이상의 기능을 갖는다。

◆프로그램(Program)=문제를 풀기위해 컴퓨터에 주는 명령을 말한다。컴퓨터는 인간의 말을 그대로 알아 들을수 없으므로 기계가 알아들을수 있도록 번역의 역할을 하는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 Processor)=마이컴의 두뇌부분에 해당하는 부품。기억장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할뿐 자기자신은 생각하지 못한다。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문서작성편집기。사무용으로 가장많이 보급된 소형컴퓨터다。기억된 정보를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종이위에 재생해준다。문장의 삭제、교정등을자유자재로할수있다。

◆하드·웨어(Hard Ware)=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와 주변장치및 단말장치등 외형을 갖춘 눈으로볼수있는 기기들을 가리킨다。하드웨어의 일반적기능은 入力、기억、演算、出力、制御등 5가지로나눈다。

◆소프트·웨어(Soft Ware)=하드웨어의상대적개념으로 하드웨어가 가지고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기술、즉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컴퓨터메이커가 준비하여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웨어(Application Ware)=기업의 경우 급여계산、원가계산、판매관리、재무관리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이들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목적에따라서 특징이 다르기때문에 이용자가 스스로 개발해야한다。

◆휴먼·웨어(Human Ware)=컴퓨터는 인간이 살고있는 사회에서의 문화적、경제적、환경적、심리적인 부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고있다。휴먼웨어는 컴퓨터의 역할과 기능에의해 일어나는 혼란을 막기위해 정보체계、사회체계및 기술체계가 서로 인간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수있도록 연구하는 분야다。

컴퓨터萬能 超現實의 세계

생각하는 로보트

실리콘·칩이 神經역할… 美·日서 實驗성공

"95年엔「複製人間」등장"

『인류가 진화해온 과정에 비춰볼때 컴퓨터인간은 고도의 지적능력을 갖춘 형태로 진화하는게 불가피하다』고 美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로버트·야스트로 박사는 말한다。그것은 인간의 사고능력과 지적능력을 초월한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제인간의 등장을뜻한다。

과학자들은 지금 신경세포가 아닌 실리콘칩을 갖고 인간과같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수 있는 생명체(컴퓨터)의 실험을 계속하고있다。야스트로 박사는 현재의 개발속도라면 1995년쯤 가서는 인간의 능력과 똑같은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한다。즉 그때가면 진짜생명을갖고 태어난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시설은 단한개의 칩속에 10만개의 트랜지스터를 몰아넣는 방법을 개발、한개의 칩이 생각과 기억、두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있게 되었는데 만약 한개의 칩이 여러개의 다른 칩과 연결될때는 컴퓨터의 실리콘두뇌는 인간두뇌가 갖고있는 靈感、直觀力까지 지니게 되는 것이다。

로보트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50년 무렵이다。

그것은 사람이 조작하는 MM로보트로 처음엔 방사선물질의 취급같이 사람에게 위험한일을 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1960년초에는 산업용 로보트의 원조라할수있는 버스트란과 유니메트가 실용화되었다。이것은 플레이백·로보트라고 불리는것으로 사람이 미리 작업순서를 보여줘 기억시킨후 그것을 필요에따라 되풀이 실행하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용 로보트의 출현에 자극을 받아 뒤이어 지능로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스탠퍼드대학은 1965년에 로보트가 입방체의 토막나무 쌓기놀이를 TV카메라로보고 그것에 따라 재연하는 실험을 했다。

그후 눈、귀、머리、손、발을 가진 로보트의 연구가 계속됐고 최근에는 감각기능을 갖춘 지능로보트가 출현했다。

지능로보트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술로는「힘의 검출과 제어」기술및「시각정보처리」기술등이있다。로보트에게 섬세한 동작을 시키기위해서는 종래와같은 위치제어만으로는무리인것이다。일본의 電總研에서는 정확한 위치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과같이 힘의 조절로써 여러가지일을 할수있는 로보트를 만들었다。

한편 시각정보처리는 대상물의 모양이 대개 일정하거나 대상과 배경이 충분한 차이가 있어 대상물의 외형을 구별할수있을때는 쉽게 실용화될수있다。

이러한 로보트「눈」은 그자체만으로도 역할을 할수있는 검사공정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지금은 더욱 사람의 능력에 가까운「눈」을 만들기위해 이상의조건외에 물체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있다。

현재 산업용으로 쓰이는 로보트에는 앞서 이야기한 手動조작(MM)로보트、플레이백·로보트(PR)、감각과 인식기능을 갖추고 행동결정을 할수있는 지능로보트(IR)、미리 설정된 순서와 조건에따라 동작을 진행하는 연속작동로보트(SR)、위치와 조건등을 종이테이프나카드로공급하는수치제어로보트(NR)가있다。

일본 로보트學의 權威 加藤一郎교수(早大理工學部)도『벽 저편에서 얘기소리가 들려 들여다보았더니 로보트들의 對話였다하는 시대가 드디어 온다』고 말한다。

10년전 加藤교수 연구실에서 개발한 두발로 걷는 로보트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1살반정도된 아기의 아장걸음정도였다。그것이 작년에는 4살정도의 유아걸음걸이로 진화했다。

최근에 나온 상업용이외의 진기한 로보트에는 加藤교수가 개발중인「觸診로보트」같은것이있다。이로보트는 25개의 손가락을 사용、유암의 응어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한다。그밖에도 노약자나 신체장애자를 침대에서 이동시켜주는 조수로보트、침대에 누운채 지시하면 茶를날라다주는간호로보트、맹인을 안내하는 향도로보트의 硏究도추진되고있다。【兪爽根기자】

『컴퓨터의 대량소비시대를 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작업자들 판촉기구의 하나인「Produx2000Inc.」가 주최한 비즈니스및 개인용컴퓨터종합전시가 2월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1백40여참가업체들의 자기회사선전을위한 갖가지 팸플리트가 가득한 가운데 특히 눈에띈것은 라디오·섀크(Radio Shack)社제품 로보트。로보트는 전시장을돌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나누고 간혹 대화중 악수도 청하며 자기회사선전에 열을올리고 있다。【로스앤젤레스支社=盧榮烈기자】

◇로보트侵攻— 다재다능한 서비스에 일하고있다。

컴퓨터 선생님

視聽覺교육보조기「사이클롭스」

강의 내용 圖表·스케치로

單純프로그램장치가 特徵

遠隔연결 全國販促회의도

카세트를 자동장치에 끼우자 파란삼각형하나가 화면위에 갑자기 빛났다。이어 삼각형의 오른쪽각두변적에 9와 12라는 숫자가 나타났다。『직각3각형의 사변은 얼마인가?』라는 소리가 기계에서튀어나온다。기계는 다음순간『15다』라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화면위에 그숫자를썼다。학생들은 이렇게 전자기계로 기하수업을 한다。

기계이름은 사이클롭스。영국 오픈大學이 개발한 시청각교육보조기다。사이클롭스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오픈大學 신교육과정 학생들과 TV강의사이를 직접 상호연결한다。강의내용은도표·스케치·활자로된교재·그래프등으로 TV에 표현된다。

학생들은 각자 구두로 또는 전용펜을갖고 TV화면위에 글자를써 질문에 답변한다。강의방송에서는 학생들의 답변은 전국중계방송망을 통해 서로 시청이 가능하다。

이같은 시스템은 사업상에도 이용될수있다。회사들은 멀리떨어져있는 대리점들을 일시에 연결시켜 전국적인 판촉회의를 열수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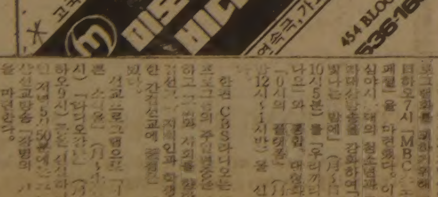
다른 시스템과는 달리 사이클롭스는 음성뿐아니라 도식도 갖추고있다。각터미널에서 말대답도하고 문답도하는 기능을 가졌다。

사이클롭스는 디지틀 정보로부터 고도로 선명한 도식을 만들어낸다。이도식은 앞과 기하형기호인데 7만6천8백개의 점으로 구성된다。각점은 8개의 색깔을 띨수있다。도식의 영상은 선들이 합친것이다。

스크린위의 원은 뾰족뾰족한 톱니형이 아니라 매끄러운 원형이다。사진도 재생 가능하다。테이프만 정지시키면 어떤 영상이든 계속 유지할수있다。걸어가는 선녀의 비 사람모습처럼 영상을 천천히 활성화할수도있다。

사이클롭스의 큰장점은 단순한 프로그램 기록장치라는 것이다。때문에 강사도 스스로 테이프를 만들수있으며 카메라맨과 특수조명、비디오테이프에 필요한 시설비도불필요하다。

사이클롭스는 컴퓨터분외 이용을위해 고안됐다는것이다。



MBC·CBS 라디오

經濟·스포츠프로 강화

3月부터 全面개편

MBC 라디오와 CBS라디오는 3월1일부터 프로그램을 전면개편했다。MBC라디오는 방송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새벽5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22시간동안 방송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교육、스포츠의 프로그램화및 청소년과 근로자대상 방송을 강화한다。

국외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NBC홈스튜디오에서 만납시다」(日~土하오4시5분)와「바니퀴즈」(日하오3시5분)을 신설하며 경제활성화를 하기위해「마이크를 현장을가다」(月~日상오7시50분)시추에이션드라마「홀랍상사」(月~土상오6시5분)「여성경제 세미나」(日상오10시5분)를 새로 내보낸다。

또한 스포츠중계방송의 프로그램화를 위하여 [illegible] 日하오7시「MBC스포츠 [illegible]」을 마련했다。이밖에 심야시대의 청소년과 근로자대상방송을 강화하여 [illegible]

한편 CBS라디오는 신교 프로그램의 주안점을 [illegible]

복합문화주의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함께 성장합니다!

캐나다 복합문화주의는 많은 프로그램을통해,서로 당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육성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캐네디안들은 서로를더욱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할수 있읍니다.

함께 살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일하는
모든 캐네디안을위한
더 밝은 미래.

복합문화주의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Canada

都心놀라게한 行長室 爆音

◇은행주변인도에 빼곡히몰려든 시민들。한때 차량통행이 끊겨 서울도심은 한때 큰 혼잡이 빚어졌다。

◇범인이 행장비서실에 갖고들어온 가방을 현장감식요원들이 정밀감식을 하고 있다。

◇긴급출동한 전투경찰 대원들이 직원들의 현장 접근을 제지하고 있다。

◇지난해11월 빈에서 열린 반한인사의 모임인 「해외한국인 기독자회의」에 참석했던 崔泓熙(뒷줄 서있는 남자중 ○표)。崔의 왼쪽 한복차림여성이 북괴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 서기국장許貞淑, 그 오른쪽×표가 崔德新이다。

全대통령 危害企圖사건全貌

國際범죄단에 成功하면 60萬弗

加경찰 半年前탐지

9개國 경찰 合同수사로 凱歌

뉴스 추적

캐나다와 한국경찰이 동시발표한 全斗煥 대통령유해기도사건은 재외동포가 북괴의지령을 받아 全대통령이 캐나다를방문할때 범행하려한것이 아닌가보여져 충격적이다。또이사건을 주모한 崔重華(28)가 장성출신이며 말레이지아대사를 지내는등 지도급인사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崔泓熙(64·전국제태권도연맹총재)의 아들이며 이들부자가 범행전 북괴를왕래、북괴고위층의사주를 받은것으로알려졌다。

주범崔는 이미 하수인으로매수한 캐나다인 3명에게 6만8천달러를 지불했고 범행에 성공할경우 모두 60만달러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확인됐다。

崔는 본적이 서울龍山區元曉路1街83의8호로 서울西大門區延禧洞에 있는 서울외국인중학교를 졸업、동고등학교2학년때 중퇴했다。

崔는 72년1월 캐나다로 이민간 아버지의 초청으로 74년3월19일 아버지를따라 캐나다로 이민、태권도사범노릇을 하면서 (교포 김모씨의 아들)을 통해 무기판매업자이며 마피아단원인찰스·야노버、알렉산더·게를등과 사귀어왔다。崔는 80년9월20일부터30일까지 10일동안 아버지 崔泓熙가 태권도단을 인솔、북괴에 갔을때 동행했었다。

한편 崔泓熙는 본적이 咸北吉州로 해방전 일본중앙대학교 법학부를 수료、해방후인 46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소위로 임관했다。그는 53년 제1군단부군단장(준장)、제29사단장、3관구사령관(55년6월) 제2훈련소장(60년11월)、6군단장(61년5월)등을 거쳐 62년3월 예비역으로 편입했다。

그후 주 말레이지아대사관 전권특명대사를 지냈고 69년1월 외무부 본부대사직을 의원면직하는동안 군관계와 외무부요직을 두루 거쳤다。그러나 당시 정부와의 사소한 의견으로 72년1월31일 캐나다로 이민했다。

崔는 이민후 위싱턴에서 당시 반한활동을 벌이고있던 林昌榮(전유엔대사)등과 반한활동에 앞장섰다。또 북괴에 갔을때는 태권도 시범외에 金日成、金一(북괴부주석)등과 면담할정도로 변신했으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기도했다。

캐나다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첩보로 알게된것은 지난해 9월초순으로 그후 6개월동안 인터폴을 통해 수사끝에 조직적인 국제해결사까지 동원한 범행기도 전모를 밝혀낸것。

崔重華를 이사건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1월6일 비엔나를 경유、북괴로 도주했기때문에 검거하지못한점이 아쉽다。한편 이번사건은 비록 외국경찰에 의해서였지만 조기에 발견했다는 점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국내에서 영화를누리다 이민간 사람들이 반한인사로 변신、조국을 배반했다는점에서 분노를 금치못하는것 또한 사실이다。

安應模치안본부장은 이같은사실을발표하면서『모든 해외에있는 동포들이 북괴의 이같은 간악한책동을 각별히 경계하여 해외동포를상대로한 불순음모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強力사건 初動부터 檢事전담

大檢、1審선고때까지 責任制

용의자지목·신병확보등 現場서 수사방향지휘

대검은 26일 앞으로 중요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전담검사를 현장에 보내 초동수사를 지휘하고 1심 선고때까지 일관된 수사로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토록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내달중 30명에 전문교육 실시

대검은 이날 「강력사건수사및 공소유지지침」을 시달하면서 이같이 지시하고 전담검사는 사건현장상황을 정확히 확인한뒤 경찰수사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지휘토록했다.

대검은 특히 경찰수사를 지휘할때▲수사계획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게하며 ▲수사방향설정및 수사방법의 잘못을 시정하며▲필요한 증거의 누락방지와 수집된증거의 증거요건및 증명력확보를 지도하며▲용의자의 지목이나 신병처리에 무리가없도록 지도감독하는일등에 역점을 두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이날 지시에서 종전에 거의 경찰수사결과만을 토대로 공소유지를 하려던 타성을 버리고 사건이 송치된뒤라도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는등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것처럼 철저하게 보완조사하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를위해 오는 3월중에 전국에서 강력사건전담검사 30명을 정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大學진학指導 강화

適性외면하는校長은 追放

李文敎 밝혀

李奎浩문교장관은 26일『학생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함이 없이 세칭일류대 인기학과 합격자숫자를 늘리는것으로 진로지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고교교장들은 우리교육계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위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자리에서 『입시후유증이 심한것은 학력고사몇점짜리는 무슨대학 무슨학과에 가야한다는식의 그릇된 진로지도를하는데에 비롯된다』며『세칭일류대학에 많이 보낸것이 좋은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일선학교 교장들은 인사조치를해 올해는 진로지도를 과감히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李장관은 최근 일부 사립고교들이 그릇된 진로지도로 세칭 신흥명문고교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현상은 진로지도 본래의 의미와 고교평준화를 심해하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李장관은 또 국민학교5、6학년때부터 중·고교 진학지도자는 다른 인간교육적인 의미에서 진로지도를 강화、우리사회가 필요로하고 적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아울러 고교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학과별 능력별수업을 학교장들이 창의적으로 실시할수있도록 적극권장하고 두발·복장자유화에 따른 생활지도를강화하라고덧붙였다.

서울大 졸업식

서울大 81학년도 졸업및학위수여식이 26일하오2시冠岳캠퍼스대운동장에서열렸다。

尹日善전임총장、元容奭동창회장등 인사와 교직원、학부모、학생등 2만여명이 참석한가운데열린 이날 졸업식에서 權彝赫총장은 식사를통해『우리사회는 아직도 제나름의 모습을 갖추기위해 변화와 발전의 진통을 겪고있으며 어디에나 벅찬활동의여지와 여백이있다』고 말하고『졸업생여러분은 이여백들을 정의와 풍요와 희망으로 채우는 주역이돼야 한다』고 말했다.

돈받고 百12명合格

자동차整備士 시험 不正 14명구속

【釜山=聯】전국을 무대로 자동차정비사면허시험응시자들을 모아 이들로부터 1천6백39만원의 뇌물을받고 1백20명을 부정합격시킨 자동차정비학원간부와 기능사시험관등 일당 14명이 경찰에 잡혔다.

부산東萊경찰서는 25일 전국규모의 정비사자격시험 부정사건을 적발、부산지구 모집총책인 K자동차 정비학원 교무과장 朴景燮(56)·서울지구모집총책 서울직업훈련교사 金憲奎씨(34)및 자동차정비기능사 1·2급 시험관인 B공고기계과교사 金영관씨(44)등 시험관 5명과 뇌물전달책 B목재정비사 장홍준씨(24)등 모두 14명을 검거、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뇌물공여·뇌물수수등혐의로 구속하고 H자동차정비학원 교무과장 金재관씨(26)와 시험관4명등 7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자동차정비학원 교무과장 朴씨등 학원직원들은 면허시험관 9명과 짜고 지난 79년3월부터 4년동안 부산시東萊區溫泉洞 부산전자공고에서 연2회실시되는 자동차정비사 면허시험을 통해 응시자 1백32명으로부터 1급응시자에 대해서는 1인당 70~1백만원씩、2급응시자는 50~70만원씩을 받고 이들 응시자들의 실기시험성적을 60점이상으로 조작、이중 1백12명을 합격시킨 혐의이다.

경찰에 검거된 14명은 다음과같다。

◇모집책▲玄道鎭(21·K자동차정비학원강사)▲朴景燮(K자동차정비학원교무과장)▲李承德(28·S자동차정비학원강사)▲金憲奎(34·서울J직업훈련원교사)▲洪成杓(28·H자동차정비학원강사)

◇뇌물전달책▲張鳳俊(24·B목재정비사)▲安正基(44·서울J직업훈련원 중기과장)

◇부정시험관▲金泳官(44·B공고기계과교사)▲李尙培(52·B전자공고자동차과교사)▲盧容性(44·B기계공고 기계과교사)▲[illegible](34·N현대공고실과교사)▲俞哲坤(44·B공고기계과교사)

◇경력위조책▲柳炳淵(33·한국자동차정비진흥회 경남지부업무과장)▲俞炳千(33·한국자동차정비진흥회 釜山지부업무과장)

◇수배자명단▲金在光(26·서울H자동차정비학원 교무과장)▲李相浩(28·서울D차량정비학원강사)▲黃鎭成(28·서울D차량정비학원강사)▲金庚守(23·전B전자공고실기조교)▲李龍佑(46·서울Y공고자동차과교사)▲具燦範(S공고기계과교사)▲權炳宣(30·적십자훈련원자동차과장)

戰警 권총奪取 10代범인 검거

서울江南區 廉谷검문소 권총피탈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 13일만인 25일 車모군(17·주거부정)을 검거、범행일체를 자백받고 車군이 빼앗아간 45구경권총(총번 2087964)1정과 실탄7발、탄창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의하면 車군은 지난 13일 상오5시50분께 서울江南區廉谷洞산12 廉谷검문소에가 근무중인 李常哲수경(25)을 九龍山으로 4백m가량유인한뒤 가지고있던 야구방망이로 머리를때려 실신시키고 손발을묶은뒤 권총등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車군은 범행후 전에厚岩洞목욕탕에서 함께일한 동료를찾아冠岳區 奉天6洞108의8심원목욕탕으로가 사물보관함에 권총등을 감춰두었었다。

경찰은 그동안 九龍山 城南市일대를 집중수색하는등 수사를 벌이다 車군이 수상하다는 첩보를받고 이날하오 3시40분 목욕탕안을뒤져 권총을 찾아내고 하오6시20분 이곳에 들어오는 車군을 붙잡았다。

車군은 경찰에서『집이 너무가난한데다 지난 구정때도 고향인 충남靑陽에 못내려가 은행을털어 돈을 벌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지난달27일 범행을 결심、城南의 친구를 만나기위해 자주 지나다녔던 廉谷검문소가 인적이 드문데다 뒤에산이있어 범행장소로 물색했다고 말했다。

지난 77년 상경한 車군은 목공일을 배워 공사장을 찾아다니다 지난 79년4월부터 위생도기사(陶器社)목욕탕 때밀이등을 전전、지난해 7월이후 실직상태였다。

公演法시행령 改正

登錄없이 公演가능

국무회의는 26일 公演法시행령 개정령을 의결、공연자등록대상에서 언론기관과 정부투자기관、공연장경영자、영화제작사등을 제외、등록없이 공연할수있도록하고 소극장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3백석이하 또는 객석의 면적이 3백평방m이하인 공연장은 공연장설치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했다。

이같은 자율화조치는 지난해말 공연법의개정으로 관람료가 자율화됨에따라 취해진것이다。

이개정령은 공연장 시설기준에서 건축법에규정된사항을 삭제하고 무대、영사막등 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도록했다。

朴吾成·金相天도 金

世界태권도 金基浩는 실격

【과야길(에콰도르)=閔炳宅특파원】제5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일째경기에서한국은 라이트급의 朴吾成(해군)과 미들급의 金相天(육군)이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朴吾成은 26일 이곳 콜리세오 체육관에서 열린 라이트급 결승에서 스페인의 프랑코를 판정으로눌러 우승했고、미들급결승에서 金相天은 바레인의 압둘라키에 행운의 기권승을 거두었다。

압둘라자키는 준결승에서 발목과 턱부상을입어 경기를 치를수 없게되었다。

핀급의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金基浩(한체대)는 스페인 선수와의 1회전에서 상대선수의 안면을 부정타격、실격패했다。

핀급결승에서는 에콰도르의 프란시스코가 멕시코의 산토스를 판정으로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틀동안열린 5체급경기에서 금메달3개를 획득했다。

◇제2일전적

▲미들급결승
金相天(육군) 기권승 압둘라자키(바레인)

▲라이트급결승
朴吾成(해군) 판정 프랑코(스페인)

▲핀급결승
프란시스코(에콰도르) 판정 산토스(멕시코)

韓一여자卓球완승

日明治生命팀에

韓一銀行여자탁구팀은 한국을 방문중인 日本明治生命팀과의 친선경기 3차전에서 5-0으로 완승했다。明治生命은 내한이래 3연패를기록했다。

◇3차전전적

한일은행	5-0	明治生命
金吉福	2-1	山下恵子
朴喜淑	2-0	福田秋枝
金吉福	2-0	川野良子
黃月順	2-0	山田恵子
黃月順	2-0	古澤菊代
洪義心	2-0	川野秋枝

델레온 타이틀防禦

【아틀랜틱시티25日UPI=聯】프로복싱 WBC(세계권투평의회) 크루저급 챔피언인 푸에르토리코의 카를로스·델레온(22)은 24일 아틀랜틱시티에서 벌어진 타이틀전에서 美國의 도전자 마빈·카멜에 7회 TKO승을 거두고 타이틀방어에 성공했다。

멕시코도 油價引下

배럴當 32·50弗로

【멕시코시티25日AP=聯】멕시코국영석유회사(PEMEX)는 25일 멕시코産의 이스트모종원유와 마야종원유 가격을 현행 배럴당 35달러와 27·50달러에서 각각 32·50달러와 25달러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12: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3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30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illegible]산교회	계화심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 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 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성[illegible]교회		새벽예배(토,일):아침6시 금요성경공부:저녁9시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8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 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참 섭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의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췌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67－5605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Big Seven
678 Bloor St. W. ☎530－0523

Mr. 오 선물센타
100 City Centre Dr. Square One
Shopping Mall, Miss. ☎ : 275－2187

건축 · 설계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 PM, 토요일 10AM－6 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 동 양 한 약 상 사 *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신비의 생약 "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문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보 • 명함 • 청첩장 •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지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泰陵남자선수 새 宿所 올림픽의집 어제 竣工

泰陵선수촌의 남자선수 새 숙소 「올림픽의 집」(사진)이 착공된지 5개월만인 26일 준공식을 가졌다. 선수촌 내에 6억5천만원의 예산을 [illegible]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㉞

[illegible]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Kim's Beauty Salon
☎ : 532－7094
(1)Manager
(2)Hair Stylist Net : $1,500/Mon.

Donuts Shop에서 풀타임 오전 8 : 00～오후 4 : 30 일하실 여자분 구함. 직접내방 바람.
(영×칼레지 써브웨이 안)

Full Time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598－2546(다운타운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매매및 양도

도너츠 샵 급매(토론토지역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역)
주매상 : $3,000, 아스킹 : $85,000
☎ : 783－5454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Equipment for Sale
★Shelves for 700 Sq.ft., 3개의 Frozen food or 아이스크림 캐비넷, 6 ft.와 5ft.의 Sliding door냉장고, 아크릴사인(간판), 그외 여러가지.
★ East York에 위치한 900 Sq.ft. Space와 3베드룸 렌트 합니다.
TTC 정거장 바로앞에 위치해 있음.
☎ : 851－3866, 851－1731(저녁7시 이후)

기프트 스토아 매매
짧은시간과 권리금 없고 년매상 : $10만
Fixture＋스탁 ☎ : 651－6665

Convenience Store (900 Sq.ft.)
년매상 : $300,000 (Midland × St.Clair)
☎ : 267－8747(Tom Sherman)

Store for Sale 또는 매니저 구함.
주매상 : $3,500 렌트 : $650
리스 : 4년＋5년 Option
현금다운페이 : $7,000(매니저의 경우 2,000Deposit)
☎ : 1－(514)637－6444 (몬트리올 지역)

드라이 크리닝
①년매상 : $160,000(3베드룸 아파트 포함)
②년매상 : $127,000(리스가 오래됨)
③년매상 : $160,000(오렌지·빌 지역)
아스킹 : $75,000
☎ : 275－5555(데이브·랄)
Export Business, Realtor

성업중인 Flower Shop 매매
3901 Bathurst St. ☎ : 635－9794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 686 7 : 00PM이후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가게와 아파트 포함한 건물매매
교통이 번화한 Parkdale지역
현대식 건물 1베드룸과 2베드룸
몰게지 : $71,000(11.25%)
아스킹 : $129,900
Call : Neville Lehrer
☎ : 763－5555, 769－0531
R. Cholkan Co. Ltd. Realtor.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20,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바쁜지역의 건물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oyal Trust Co.
(1)쾌적한 4베드룸 포함한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가게, 관광중심지역
년매상 : Over $400,000
넓이 : 2200Sq. ft. 아스킹 : $149,000＋스탁
(1)작은 도시에있는 Convenience Store
매우 깨끗하고 전망좋은 모퉁이에 위치한 4베드룸 아파트(2개의 차고)
아스킹 : $114,900＋스탁
가족끼리 운영할수있는 좋은기회.
(3)21 Unit Motel.
면허있는 식당과 별개의 카테지(3베드룸 벽돌집)
Color T.V. 냉·난방장치 갖춤.
평균 객실점유율 : 60%
년매상 : $157,000 아스킹 : $550,000
Royal Trust Coopertaion of Canaba, Realtor.
107 Mississauga St. Orillia, Ont.
Mr. Irven DeGraw.
(B)705－325－6193, (R)705－325－6069

사무실·점포 렌트

DUPONT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독신자원함)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도 서 판 매

한국전집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
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 백과(전8권), 토지(전6권)등
☎ : 690－2216(Mr. 최)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식 품 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 려 식 품 ☎ : 531－2242
680 Bloor St. W. Tor.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Hi－Fi House (고급 전축 스테레오전문)
4544 Dufferin #19(더프린×휜치) ☎633－2332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58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싸우나 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8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기관및단체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752－7771
●Y M C A : 536－1166
●외 환 은 행 : 364－2890
●한 일 은 행 : 865－0456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북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 : 361－0880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2ND CLASS MAIL NO. 5248